



# 제1장

## G20 국가의 사회경제지표 비교분석

정규승  심수진

### 제1절 서론

#### 1. 연구의 목적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기존 세계금융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캐나다 등이 참가하는 G7 국가들로는 글로벌 금융안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성장해온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국제경제 협의 기구를 설정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임시로 G22와 G33 등의 협의기구가 설정되었으나, 이러한 협의기구들의 포괄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위한 상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이전에 개최된 G7 회의에서 G7과 12개 신흥국<sup>1)</sup>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의제는 당초 국제금융시장 안정이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2002년 이후에는 인구고령화, 지역경제통합, 개발자금지원의 효율화 등으로 확대되었다. G20 회의는 매년 1회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2회의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8년까지 10년간 이어지던 G20에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세계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모기지 증권과 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반적인

1)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터키

원칙에만 합의하게 되었다. 가장 시급한 금융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인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이나, 금융자본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나,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에 대한 대안마련 등 근본적인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09년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개되면서 경기부양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었고, 런던에서 두 번째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9월에 피츠버그에서 열린 세 번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논의되면서 금융위기의 확산이 완화되었으나, 회복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이르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G20 협의체가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임을 선언하고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면서, 2010년 6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제4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11월에 한국의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기로 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포함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G20 국가의 사회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G20 가입국인 19개 국가와 EU의장국인 벨기에를 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지표별 분석은 최근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가 없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가능한 최근 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두 변수를 사용한 그래프에서는 두 변수 모두 이용 가능한 국가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 2. 연구의 배경과 내용

2010년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의장국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운영위원 국가로 도약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이전 분기보다 1.8% 증가하여 6월 1일 현재 성장률이 집계된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작년 2분기, 3분기에 각각 2.4%, 3.2%를 기록하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나, 4분기엔 0.2%로 회복 속도가 주춤하면서 22위로 하락하였다. 금년 1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수출호조와 재정조기집행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지표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으면서도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인구성장률이 1980년에 1.6%에서 2008년에 0.3%로 급감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8



년 10.3%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각각의 사회경제지표에서 상반된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어, 앞서 밝힌 연구 목적에 따라 G20 회원국의 사회경제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지표의 분석에 있어서 크게 경제, 사회, 환경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세부적인 분류체계 및 지표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경제부분은 크게 6개의 세부 영역인 생산·경기, 고용·노동, 금융·물가, 국제수지, 국제투자, 재정·부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부분은 크게 4개의 세부 영역인 인구, 교육, 보건, 사회통합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환경은 환경의 단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세부 영역이 경제와 사회, 환경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국제 비교인 만큼 활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에 의해 수집된 지표들이 해당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현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국가 간 지표의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G7 평균 및 G20 평균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는 G7과 G20 중 어디에 더 가까운지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제2절 G20의 이해

G20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20 이전의 국제금융 및 국제경제 의사결정 체제에 관해 살펴보고, G20 형성과정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G20 개요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모여 구성된 것이다. 1999년에 아시아 외환

2) 특히 사회통합 영역의 경우는 활용 가능한 자료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인 “World Value Survey” 조사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자살률과 같은 지표의 경우는 비교국가 수가 11개국으로 매우 적다.

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선진국들의 협력만으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멤버들로 구성된 국제협력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선진국인 G7 국가들과 신흥국 12개국 및 EU를 포함하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1999년에 개최되었다. G7 국가들은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며, 신흥국 12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한국, 호주 등이다. 이들 G20 참가국들의 GDP는 전 세계의 GDP 대비 8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비공식 글로벌 협의체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표 1-1〉 전 세계 GDP(PPP)에 대한 비중(%)

구분	G20			G20 이외 국가
	G20	G7	G20 - G7	
1999년	85.2	49.5	35.7	14.8
2009년	83.2	40.8	42.4	16.8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0

## 2. G20 형성과정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리자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참가한 G5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1985년에 G5 회의에서 플라자 합의가 발표되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86년부터 G7 회의로 확대되어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1975년에 발생한 오일쇼크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G6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1976년부터 캐나다가 추가되어 G7 정상회의로 확대되면서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데 그 중 2차례가 봄, 가을의 IMF와 세계은행 총회 전에 개최된다. 즉, 국제금융기관의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G7 회원국들이 사전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리 의제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의제 설정권과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G7 국가들은 사전 논의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G7 회의가 지배하는 IMF와 세계은행을 이용하여 개도국과 최빈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G7 회의는 국제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회원국의 합의만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논의대상은 경제정책 공조와 환율 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 달



리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1987년 루브르 합의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G7 회의가 다루는 의제에서 환율관리를 위한 정책공조나 정부의 재정정책은 지양되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일관적인 통화정책이 강조되었다. 또한, G7 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개도국 발전 및 외채문제 등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개도국 지원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에 G7 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일례로 1980년과 2008년의 구매력평가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1.3%에서 43.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8.0%에서 40.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만으로 이루어진 G7 회의로 국제 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성 및 포괄범위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더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자 G7 회의보다 좀 더 포괄적인 국제경제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벤쿠버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위해 G7과 15개 주요국<sup>3)</sup>을 포함한 G22(Willard Group)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제안하였으며, 1998년 4월 워싱턴에서 G22 회의가 처음 개최되었다. 각국의 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 투명성 및 공개성 제고, 2) 특히 신흥국들에 있어 금융 시스템 및 시장 구조 강화, 3) 위기가 발생할 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적절한 부담 공유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Working Group을 발족시키고, 1998년 개최된 2차 회의에서 각 Working Group들이 핵심 이슈에 대하여 사전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규제 및 감독 기구들 간의 협력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1999년 2월에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을 창설하였다. 또한, G7은 1999년 초에 33개<sup>4)</sup>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금융구조에 관한 후속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는데, 1차 회의는 1999년 3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되었고, 2차 회의는 1999년 4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금융시장 감독 개선, 금융시스템 강화 및 취약한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책 채택 등의 의제를 다루었다. 이와 같이 G20 이전에 G7은 G22나 G33과 같은 임시그룹을 활용하여 임기응변적인 문제

3) G7 국가들과 15개 주요국들(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나,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공화국, 한국, 태국)이 포함됨

4) G22 국가들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칠레,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됨

해결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국들이 G22와 G33과 같은 임시 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회의의 포괄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대화를 위한 상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회의에서 자신들과 12개 신흥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첫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렸고, 이후 정례화되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G20이 만들어진 것이다.

### 3. G20의 태동

1999년 4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 재무구조 개혁에 관한 제2차 G33 세미나 직후, G7 국가들 내에서 G33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G7, G10<sup>5)</sup>을 넘어서는 국제 공조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초기에 제안된 회의는 IMF의 잠정 위원회(Interim Committee)를 의사결정권이 있는 장관회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IMF 합의 조항에서도 허용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장관급 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각국을 모두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논의 중인 일부 이슈들이 잠정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IMF의 회원국 중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G-X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실무적으로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출범시키면서, IMF 위원들은 잠정위원회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로 대체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였고, 차석대표(Deputy)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는 IMF 위원 회의의 준비를 돕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석 대표 프로세스가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이다.

1990년 6월 독일 쾰른에서 개최된 경제 정상회의에서 G7 재무장관들은 새로운 국제 포럼의 목적을 “브레튼우즈 체제 내에서 시스템상으로 중요한 국가들 간 대화의 장려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국제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적응시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설정하고, G-X의 주요 임무를 정리하였다. 당시 신흥국 내에서의 위기 상황들과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대표들의 당초 주요 관심사는 금융 안정성에 있었다. 그러나 1999년 9월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발표에서는 전 세계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

5) G7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이 포함됨



하는 내용으로까지 논의대상이 확대되었다. 새로운 조직의 주요 임무는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G20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준되었다.

G20을 브레턴우즈 체제와 연계하기 위해 몇 가지 옵션이 제시되었는데, 먼저 IMFC와 개발위원회의 의장이 G20의 공동의장을 맡는 것이다. 또는 G7 의장이 G20 의장직을 겸직하게 되는 안이 있는데, 이 경우 IMFC와 개발위원회의 의장들은 옵서버로 G20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에는 IMF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는 필요할 경우에만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 옵션은 G20 회원국이 순번제로 의장직을 맡는 것이며, 이 경우 브레턴우즈 위원회 위원장과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가 직무상 공식 멤버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G7 차석대표들은 세 번째 옵션을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옵션의 장점은 IMFC와 개발위원회가 G20 의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G20을 브레턴우즈 체제 안에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흥국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G20 의장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다.

## 가. 회원국과 의장국

G20 회원국은 G7 국가에 12개 신흥경제국과 EU의장국<sup>6)</sup>으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협력체이며, EU의장국이 G7에 속할 경우에는 19개 국가로 구성된다. G7을 제외한 신흥경제국은 아시아 4개국과 중남미 3개국, 유럽 등 4개국<sup>7)</sup>,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각각 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원국은 지역별로 5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각 그룹별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 제1그룹은 캐나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이 포함되며, 제2그룹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터키 등이 해당된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제3그룹에 속하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제4그룹으로 묶여져 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제5그룹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G20은 별도의 상설 사무국이 없으며, 의장국의 임기인 1년 동안 의장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한다. 의장국은 그룹별 순환 방식에 따라 그룹 내에서 우선 선정한 후, 2차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결정하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식 발표된다. 현재 그룹별 의장국 수임현황은 [그림 1-1]과 같다. G20 의장국은 의장국 수임년도 전후 1년씩 G20 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 의장국의 자문단 역할을 하며, 전후임 의장국은 각종 회의 시 의장국과 Co-Chair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의 의제 및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 커뮤니케 작성, 운영(Steering) 그룹 활동 등과 관련하여 별도 회

6) EU의장국은 임기가 6개월로 순번제로 운영되며, 2010년 상반기는 스페인, 하반기는 벨기에가 의장국임

7) EU의장국이 겹치지 않는 경우임

의 참석 등 의장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의장국인 한국은 2009년에 2008년 의장국인 브라질과 2009년 의장국인 영국과 함께 의장국단이 되어 G20 정상회의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림 1-1] 그룹별 의장국 수임현황

#### 나. 공식회의와 기타회의

G20은 1999년에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가 개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다른 회의보다 G20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표 1-2>에는 역대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대한 주요의제가 정리되어 있다. 재무장과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가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Deputies' and Ministerial Meeting)로 논의할 사안에 대한 합의보다는 각국의 의견교환이나 의견조율에 주력하는 회의이다.

또한,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경기침체가 발생하자, 기존의 재무장관급 회의보다 격상된 정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1-3>에는 역대 정상회의 주요 의제가 정리되어 있다. 초기에는 위기진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이후 정상회의 정례화를 거쳐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1-2〉 역대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일시	장소	의제
제1차	'99.12	독일 베를린	환율제도, 대외채무, 자본이동, G20 역할과 목표,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국내적 대응, 위기재발방지
제2차	'00.10	캐나다 몬트리올	바람직한 환율제도, 건전한 대외채무 관리, 위기방지를 위한 민간부문 참여, 국제 기준 및 규범 이해
제3차	'01.11	캐나다 오타와	국제기준 이행, 민간부문 참여,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빈곤국 국제적 지원, 세계화
제4차	'02.11	인도 뉴델리	위기에방 및 극복, 적정 환율제도 모색, 자본자유화 방안, 국가채무재조정, 세계화, 개발원조
제5차	'03.10	멕시코 모렐리아	세계화, 위기에방 및 해결, 금융제도 구축, 테러자금 조달 방지, G20 전략적 우선 순위
제6차	'04.11	독일 베를린	세계화, 금융제도 구축, 고령화, 금융시스템 남용 방지, 경제통합, 브레튼우즈 체제 개편
제7차	'05.10	중국 북경	지속가능 성장, 개발지원, 고령화와 이민, 브레튼우즈 체제 개편
제8차	'06.11	호주 멜버른	고령화와 이민, 에너지 및 광물시장, 브레튼우즈 체제 개편
제9차	'07.11	남아공 케이프타운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국제 금융시장 안정
제10차	'08.11	브라질 상파울루	세계 경제금융시장 안정, 인플레이와 세계시장,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G20 역할 제고
제11차	'09.11	영국 St.앤드류스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및 효과성, 기후변화 재원조달, 거시경제 및 지속가능 균형성장, 글로벌 금융시스템 재편
제12차	'10.04	미국 워싱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G20 공식의제 채택, 각국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 단행, 금융국제 개혁 이행

〈표 1-3〉 역대 정상회의

	일시	장소	의제
제1차	'08.11.15~16	미국 워싱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금융 등 거세 경제 정책 공조</li> <li>2. 보호무역주의 자제</li> <li>3. 국제 금융시장 개혁의 원칙·과제 확정</li> <li>4. IMF 기능 강화</li> <li>5. 신흥 개발도상국 지위 향상</li> </ol>
제2차	'09.04.02~03	영국 런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0년 말까지 재정 지출 5조 달러, 4% 성장 노력</li> <li>2. 국제 금융 감시 강화 위해 FSB(금융안정위원회) 설립</li> <li>3. 2010년 말까지 보호무역 장벽 신설 금지</li> <li>4. 신흥 개도국에 1조 1000억 달러 지원</li> <li>5.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노력</li> </ol>
제3차	'09.09.24~25	미국 피츠버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G20 정상회의의 연례화(2010년 11월 서울 개최 확정)</li> <li>2. G20을 세계 경제에 대한 최고위 협의체로 지칭</li> <li>3. 전 세계의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li> <li>4. 2010년까지 금융회사 자본 규제 등 확정</li> <li>5. IMF 지분 5% 이상 신흥국으로 이전</li> </ol>
제4차	'10.06.26~27	캐나다 토론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3년까지 선진국 재정적자 절반 감축</li> <li>2. 전 세계의 균형 성장을 위한 국가균별 정책 대안 마련</li> <li>3. 금융 규제 개혁 방안 11월 서울 회의 전까지 마련</li> <li>4. 구체적인 IMF 지분 개혁 방안 서울 회의 전 마련</li> <li>5. 서울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li> </ol>
제5차	'10.11.11~12	대한민국 서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li> <li>2. IMF 지분 및 이사진 개혁</li> <li>3.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방안 확정</li> <li>4.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li> <li>5. 개발도상국 개발 지원</li> </ol>

## 제3절 경제 지표 분석

### 1. 생산·경기

2009년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는 17,074달러이고, 구매력 평가환율로 환산하면 27,938달러로 신흥국(12개국) 중에서 호주(38,663달러)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하였다.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



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구해지는 환율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각 나라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환율이다. 구매력 평가환율은 시장환율과 달리 변동성이 크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는 2000년에 16,495달러였으며, 2005년에 2만 달러를 넘어 22,783달러를 기록하였고, 금년 2009년에 <표 1-4>에서 27,938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시장환율로 평가한 2009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8,325억 달러이나 구매력 평가환율로 평가하면 63.6% 증가하여 1조 3,622억 달러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구매력 평가환율로 평가한 명목 GDP가 시장환율로 평가한 명목 GDP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비교국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한국과 G20, G7 생산 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명목 GDP(억\$)	2009	8,325	22,572	20	44,023	7
명목 GDP PPP <sup>1)</sup> (intl. 억\$)	2009	13,622	26,343	20	40,455	7
1인당 명목 GDP(\$)	2009 <sup>2)</sup>	17,074	22,728	20	43,372	7
1인당 명목 GDP PPP <sup>1)</sup> (intl. \$)	2009 <sup>2)</sup>	27,938	23,165	20	39,896	7
실질 GDP(억\$)	2009 <sup>3)</sup>	7,528	20,308	13	35,388	7
광공업생산지수 <sup>4)</sup>	2009	118.9	98.0	15	86.9	7

주: 1) PPP는 구매력 평가환율로 평가한 지표를 의미함

2)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은 예측자료임

3) 실질 GDP는 2000년 기준년 가격기준이며, 러시아는 2008년 자료임

4) 광공업생산지수는 2005년=100인 계절조정지수임

우리나라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18.9로 G20 대상국가 중에서 두 번째 수준이며, 인도(135.3)가 가장 높고, 일본(81.7)이 가장 낮으며,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 그룹별 평균지수를 살펴보면, G20의 평균지수는 98.0이고, G7의 평균지수는 86.9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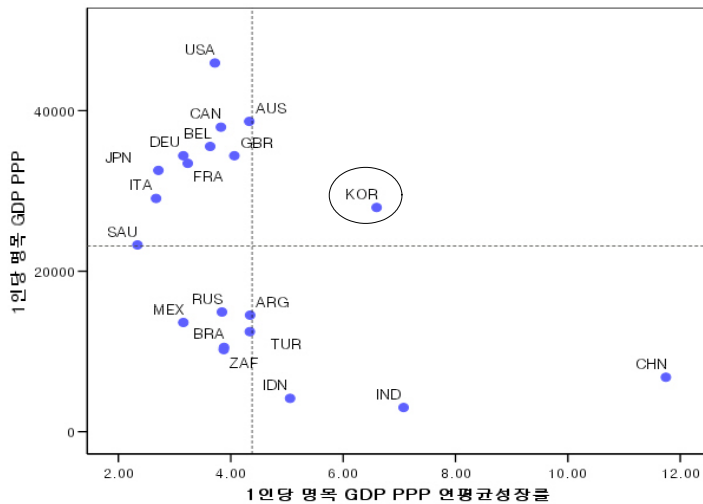
<표 1-5>에서 1992~2009년 1인당 명목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4.77%이나 구매력 평가환율로 환산하면 6.60%로 G20 평균인 4.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G20 국가 중 8위이나, 구매력 평가환율로 평가한 연평균 성장률은 중국(11.7%)과 인도(7.1%)에 이어 3위 수준이다. 1992~2009년 명목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5.44%로 G20 국가 중 9위이나, 구매력 평가환율로 환산한 연평균 성장률은 G20 평균(5.35%)보다 높은 7.28%로 나타나, 1인당 명목 GDP와 같이 중국(12.6%)과 인도(8.9%)에 이어 3위 수준이다. 이와 같이 G20 국가 중 1인당 명목 GDP PPP와 연평균 성장률이 모두 G20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한국과 G20, G7 생산 지표의 연평균 성장률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연평균 성장률 <sup>2)</sup>	G7 연평균 성장률 <sup>2)</sup>	
		연평균 성장률	순위 <sup>1)</sup>			
명목 GDP(억\$)	1992-2009	8,325	5.44	9	6.11	3.65
명목 GDP PPP(intl. 억\$)	1992-2009	13,622	7.28	3	5.35	3.87
1인당 명목 GDP(\$)	1992-2009	17,074	4.77	8	5.14	3.12
1인당 명목 GDP PPP(intl. \$)	1992-2009	27,938	6.60	3	4.38	3.34

주: 1)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평균 성장률의 순위임

2) G20(G7) 연평균 성장률은 G20(G7) 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들의 평균임



[그림 1-2] 1인당 명목 GDP PPP와 연평균 성장률 : 1992-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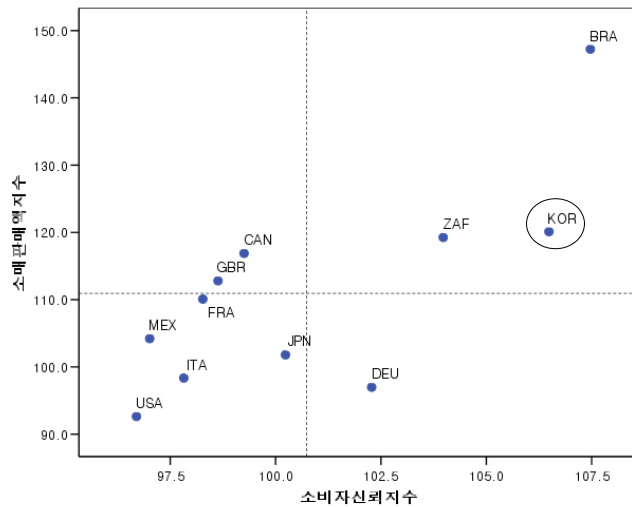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종합지수는 <표 1-6>에서 102.8로, G20 평균(102.7)보다 소폭 높고 G7 평균(103.4)보다 낮았다. 2010년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우리나라가 122.8로 G20 평균(114.8)과 G7 평균(105.5)보다 높게 나타났다. G20 국가 중 독일(98.6), 이탈리아(98.1) 그리고 미국(94.0)은 100 이하로 나타났다.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는 현재와 6개월 후의 지역경제상황, 고용상태, 가계수입 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며, 100이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한다는 의미이다. 2010년 7월 우리나라의 소비자신뢰지수는 106.5로 G20 국가 중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G7 국가 중 이탈리아(102.4)와 일본(100.2)만 10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6> 한국과 G20, G7 경기 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경기선행종합지수 <sup>1)</sup>	2010. 7	102.8	102.7	18	103.4	7
소매판매액지수 <sup>1)</sup>	2010. 7	122.8	114.8	13	105.5	7
소비자신뢰지수 <sup>2) 3)</sup>	2010. 7	106.5	100.7	15	99.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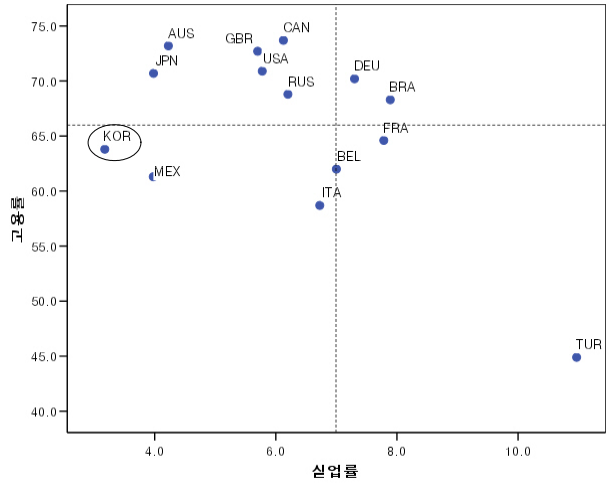
주: 1) 경기선행종합지수는 long term average=100이고, 소매판매액지수는 2005년=100임  
 2) 소비자신뢰지수는 계절조정지수로 normal=100임  
 3) 일본은 2010. 6월 자료이고, 중국은 2010. 5월 자료임



[그림 1-3]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 2010. 7월

## 2. 고용 · 노동

2009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6%로 G20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표 1-7>에 나타났다. 실업률은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OECD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반면, 고용률은 63.8%(2009년 58.6%)로 G20 평균인 66.0%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캐나다(73.7%)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44.9%)이다. 한편, 2008년 자영업자 비율은 1.482배(2009년 1.429배)로 G20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io)은 고용자수(피고용자수와 자영업자수의 합)를 피고용자수로 나눈 값이다.



[그림 1-4] 실업률과 고용률: 2008년

<표 1-7> 한국과 G20, G7 고용·노동 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실업률(%)	2009	3.6	8.5	18	7.9	7
고용률(%)	2008	63.8	66.0	14	68.8	7
자영업자 비율 <sup>1)</sup> (배)	2008 <sup>2)</sup>	1.482	1.222	11	1.179	7

주: 1) 자영업자 비율은 고용자수를 피고용자수로 나눈 값으로 고용자수는 피고용자수와 자영업자수의 합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수로 나타나고 1에 가까울수록 자영업자수가 적음을 의미함

2) 호주는 2006년 자료임

※ 2009년 한국의 고용률과 자영업자비율은 각각 58.6%(통계청), 1.429(통계청,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임

### 3. 금융·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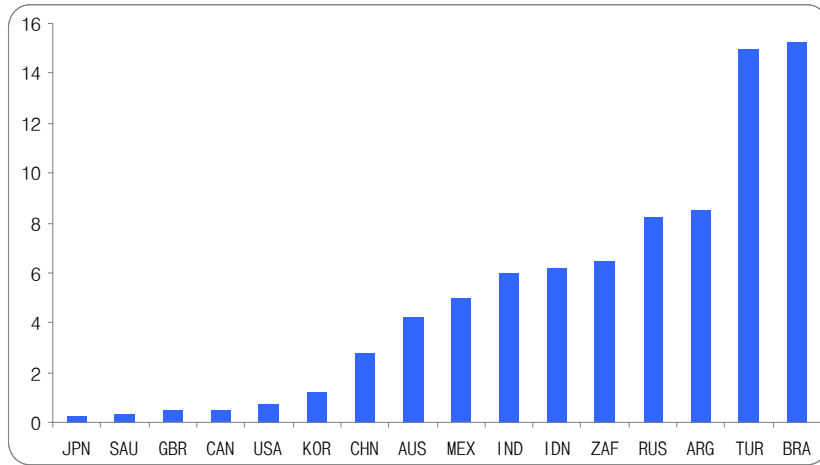
2010년 4월 우리나라 단기정책금리는 1.25%로 G20 평균(5.08%)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표 1-8>에 요약되어 있다. G7 국가 중 자료 활용이 가능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의 평균은 0.50%이다. 우리나라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모두 G20 평균보다 낮지만 G7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는 각각 113.2, 110.9로 G20 평균(119.5, 121.4)보다는 낮고 G7 평균(107.0, 107.5)보다는 높다. 또한, 2009년 GDP디플레이터는 108.4로 G20 평균인 122.3보다 낮고 G7 평균인 10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한국과 G20, G7 금융·물가 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단기정책금리(연율, %)	2010. 4	1.25	5.08	16	0.50	4
소비자물가지수 <sup>1)</sup>	2009	113.2	119.5	20	107.0	7
생산자물가지수 <sup>1)</sup>	2009	110.9	121.4	18	107.5	7
GDP디플레이터 <sup>1)</sup>	2009	108.4	122.3	20	106.8	7

주: 1)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GDP디플레이터는 2005년=100임



[그림 1-5] 단기정책금리(연율, %): 2010년 4월

2008년 명목 GDP에 대한 총저축의 비율인 총저축률은 <표 1-9>에서 30.9%(2009년 30.1%)로 G20 평균(22.3%) 및 G7 평균(2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9년 가계저축률은 3.6%로 G20 평균(7.7%)보다 낮았다. 가계저축률과 총저축률 관계에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는 유사한 형태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두 저축률이 모두 G20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다.

<표 1-9> 한국과 G20, G7 금융·물가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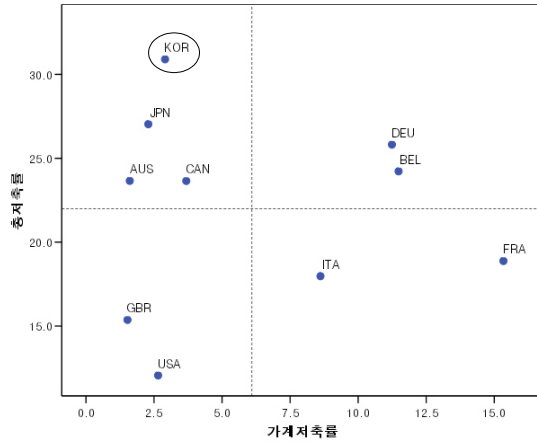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총저축률 <sup>1)</sup> (%)	2008 <sup>3)</sup>	30.9	22.3	11	20.1	7
가계저축률 <sup>2)</sup> (%)	2009	3.6	7.7	10	7.8	7
	2008	2.9	6.1	10	6.5	7

주: 1) 총저축률은 명목 GDP에 대한 총저축의 비율임

2) 가계저축률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액의 비율이며,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총가계저축률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순가계저축률임

3) 일본은 2007년 자료임

※ 2009년 한국의 총저축률은 30.1%(한국은행)임



주: 1) 가계저축률에서 프랑스, 영국은 총가계저축률(Household Gross Saving Rate)이고, 나머지 국가는 순가계저축률(Household Net Saving Rate)로 순가계저축률은 고정자본에 대한 소비를 제외하고 측정한 것임

- \* 총가계저축률 = 가계의 총저축액/가계의 총조정처분가능소득
- \* 순가계저축률 = 가계의 순저축액/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
- \* 총조정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조세, 사회부담금, 사회적 현물 이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 소득

[그림 1-6] 가계저축률과 총저축률: 2008년

우리나라는 가계저축률과 총저축률 모두 감소하였으나 가계저축률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저축률은 2000년에 32.9%에서 2009년에 30.1%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2.8%p인 반면에, 가계저축률은 2000년에 9.3%에서 2009년 3.6%로 감소하여 감소폭이 5.7%p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저축률이 감소한 이유로는 금리하락 및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4. 국제수지

<표 1-10>에는 국제수지관련 지표가 요약되어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43.4%, 38.8%로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G20 국가 평균 수출수입 비중(각각 22.6%, 2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수입 비중은 우리나라가 G20 국가 중 가장 높고, 브라질(8.5%)이 가장 낮으며,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66.0%)가 가장 높고, 미국(7.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입 비중이 G20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5.1%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란 국제 간 자본거래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와 소득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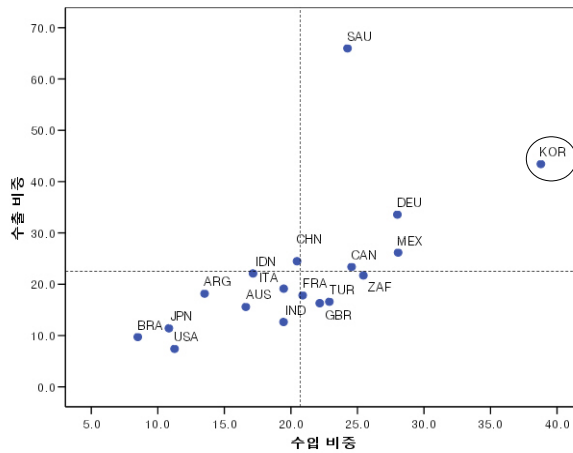


로 구성된다. 2009년에 G7 국가들 중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5.0%)과 일본(2.8%)뿐이었다. 우리나라의 2009년 공적대외준비자산은 2,700억 달러로 G7 국가들의 평균(2,482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일본(1조 494억 달러)은 G7 국가이면서도 공적대외준비자산이 매우 많고, 남아프리카공화국(397억 달러)은 G20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적은 국가이다.

<표 1-10> 한국과 G20, G7 국제수지 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수출 비중(FOB, %)	2009 <sup>1)</sup>	43.4	22.6	19	18.4	7
수입 비중(CIF, %)	2009	38.8	20.7	18	19.6	7
경상수지 비중(%)	2009 <sup>1)</sup>	5.1	0.4	20	0.4	7
공적대외준비자산(억\$)	2009 <sup>2)</sup>	2,700	3,250	19	2,482	7

주: 1) 수출 비중의 사우디아라비아는 2008년 자료, 경상수지 비중의 호주, 벨기에, 러시아는 2008년 자료임  
 2) 공적대외준비자산의 이탈리아는 2008년 자료임  
 3) 수출 비중과 수입 비중, 경상수지 비중은 GDP 대비 비중임



[그림 1-7] 수출 비중과 수입 비중: 2009년

## 5. 국제투자

2009년 우리나라의 대외투자는 <표 1-11>에서 6,048억 달러이고, G7 국가들과 중국(3조 4,601억 달러), 러시아(1조 1,092억 달러), 호주(7,030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로 나누어지며, 해외직접투자는 직접 경영에 참

가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입, 기업설립, 전략적 제휴로 자금대여 등이 해당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156억 달러로, G7 국가들과 벨기에, 호주, 러시아, 중국, 브라질에 비해 낮았다. G7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균 규모는 1조 5,627억 달러로 G20 평균보다 약 2.4배 수준이다.

2009년 외국인투자는 7,528억 달러로, G7 국가들과 중국(1조 6,381억 달러), 호주(1조 2,021억 달러), 브라질(1조 799억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투자도 외국인직접 투자와 외국인간접투자자로 나누어지며, 외국인직접투자는 회사신설, 증자참여, 지분인수(10% 이상 취득하고 10%가 5천만 원 이상) 등이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200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1,108억 달러로 G20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흥국(12개국) 중에서 가장 많고, 일본은 G7 국가임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이다.

순국제투자는 대외투자에서 외국인투자를 차감한 것으로 2009년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는 1,4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순국제투자가 가장 큰(흑자) 국가는 일본이고, 가장 작은(적자)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다.

<표 1-11> 한국과 G20, G7 국제투자 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대외투자(억\$)	2009 <sup>1)</sup>	6,048	35,788	18	81,150	7
해외직접투자(억\$)	2009	1,156	6,506	20	15,627	7
외국인투자(억\$)	2009 <sup>1)</sup>	7,528	35,845	18	81,024	7
외국인직접투자(억\$)	2009	1,108	5,286	20	10,285	7
순국제투자 <sup>2)</sup> (억\$)	2009 <sup>1)</sup>	1,480	57	18	12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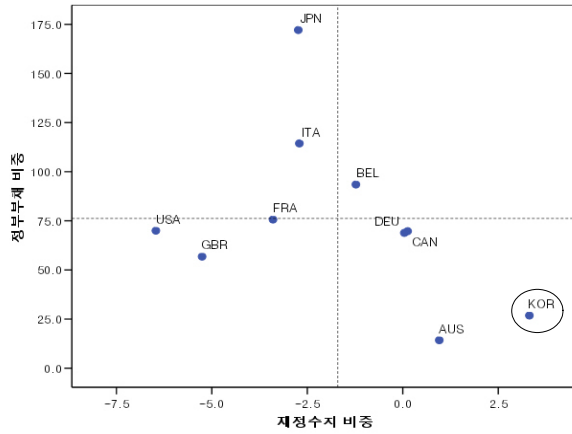
주: 1) 대외투자, 외국인투자, 순국제투자의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8년 자료임

2) 순국제투자는 대외투자에서 외국인투자를 차감한 것임

3) 대외투자, 외국인투자, 순국제투자는 국제 투자대조표의 통계임

## 6. 재정 · 부채

<표 1-12>에 요약되어 있는 2008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우리나라가 3.3%(2009년 1.7%)로 G7 평균(2.9%)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독일 등 3개 국가이다. 재정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의 경우에도 그 규모가 GDP 대비 5% 이상인 국가들은 인도, 미국, 영국 등이다.



[그림 1-8] 재정수지 비중과 정부부채 비중: 2008년

<표 1-12> 한국과 G20, G7 재정·부채 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재정수지 비중 <sup>1)</sup> (%)	2008	3.3	2.2	12	2.9	7
정부부채 비중 <sup>1)</sup> (%)	2008	26.8	76.2	10	89.7	7
대외부채(억\$)	2010. 1/4 <sup>2)</sup>	4,098	24,012	18	55,206	7
단기대외부채 비중 <sup>1)</sup> (%)	2009. 4/4 <sup>3)</sup>	15.3	37.1	16	73.9	7

주: 1) 재정수지 비중, 정부부채 비중 및 단기대외부채 비중은 GDP 대비 비중임

2) 대외부채의 벨기에는 2009년 4분기 자료임

3) 단기대외부채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대외부채를 의미함

※ 2009년 한국의 재정수지 비중과 정부부채 비중은 각각 1.7%, 32.0%임(한국은행)

우리나라의 2008년 정부부채 비중은 26.8%(2009년 32.0%)로 G7 평균(89.7%)보다 매우 낮으며, 호주와 우리나라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50% 미만을 기록하였다. 정부부채가 GDP보다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114.4%)와 일본(172.1%)이다. 대외부채는 우리나라가 2010년 1분기에 4,098억 달러로 G7 국가들과 벨기에, 호주, 러시아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GDP 대비 단기대외부채 비중은 15.3%로 G20 평균(37.1%)의 절반 수준이다. 브라질은 단기대외부채가 가장 적은 국가이며, 영국은 GDP의 2.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절 사회 · 환경지표 분석

### 1. 인구

한국의 인구는 <표 1-13>에서 2008년 48,607천 명으로 G20 국가 중 15번째로 인구가 많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국가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48,687천 명)이 있으며, 중국의 인구는 2008년 1,325,640천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도(1,139,965천 명), 미국(304,060천 명) 순으로 인구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수는 G20 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국토면적당 인구수인 인구집중도는 2010년 487.3명/km<sup>2</sup>으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높은 인도(369.4명/km<sup>2</sup>), 벨기에(350.4명/km<sup>2</sup>), 일본(336.1명/km<sup>2</sup>)보다도 100명/km<sup>2</sup> 이상 높게 나타나 인구밀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호주(2.8명/km<sup>2</sup>), 캐나다(3.4명/km<sup>2</sup>), 러시아(8.2명/km<sup>2</sup>)로 모두 10명/km<sup>2</sup> 이하로 나타났다.

국토면적당 인구수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인구성장률은 2008년 0.31%로 G20 국가 중 17번째이다. G20 국가의 인구성장률 평균이 0.53%이고, G20 국가의 평균이 0.86%인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인구성장률이 낮은 국가는 러시아(-0.21%), 독일(-0.16%), 일본(-0.05%) 등의 국가들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2.00%, 1.73%, 1.69%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인구수, 인구집중도,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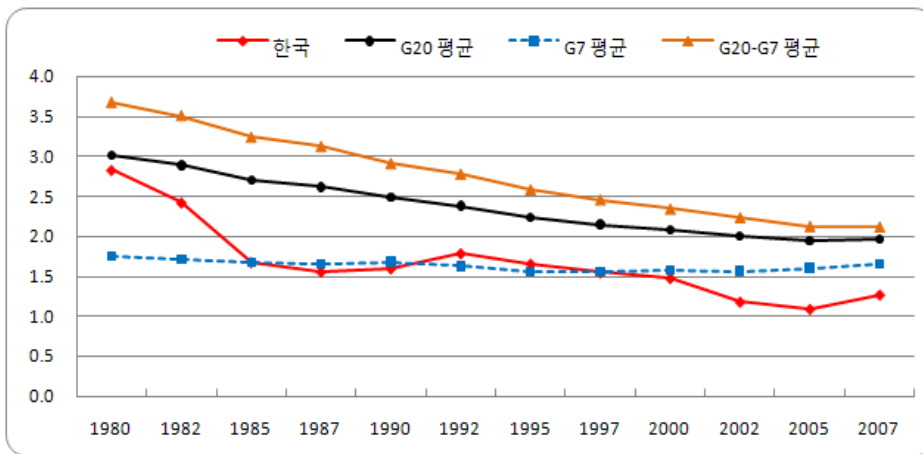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인구수(천 명)	2008	48,607	206,615	20	104,360	7
인구집중도(명/km <sup>2</sup> )	2010	487.3	144.8	20	167.2	7
인구성장률(%)	2008	0.31	0.86	20	0.53	7

주: 한국 자료 중 인구수는 2009년 48,747천 명, 2010년 48,875천 명, 인구성장률은 2009년 0.29%, 2010년 0.26%임(통계청, 추계인구)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우리나라의 낮은 인구성장률은 합계출산율이 2007년 1.26명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표 1-15>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G20 평균인 1.95명이나 G7 평균인 1.66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 G20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합계출산율은 가족 계획정책에 따른 출산억제의 영향으로 1980년대 초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980년 2.8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5년 동안 41.0%가 감소하여

1995년에는 1.67명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 다시 크게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8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9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여 1.15명 수준이다. 반면 G7 국가의 경우 1980년 평균 합계출산율은 1.75명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1.5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20 국가 평균과 G7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G20 국가 평균을 보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한국과 같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

[그림 1-9] 연도별 합계출산율(명)

G20 국가 중 한국 이외에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독일, 러시아로 <표 1-14>를 보면 1.5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 1995년 각각 1.18명, 1.25명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도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2000년 이후는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4> 주요 국가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단위 :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한국	2.83	1.67	1.59	1.65	1.47	1.08	1.26
독일	1.44	1.37	1.45	1.25	1.38	1.34	1.39
러시아	1.89	2.05	1.89	1.34	1.21	1.29	1.41
이탈리아	1.64	1.39	1.26	1.18	1.24	1.32	1.34
일본	1.75	1.76	1.54	1.42	1.36	1.26	1.34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

낮은 인구성장률과 합계출산율에도 불구하고, <표 1-15>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8년 10.3%로 G7 평균인 17.4%와 비교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G20 국가 중 일본의 노인인구 비율이 22.1%로 가장 높으며, 이탈리아(20.3%), 독일(20.1%) 등 유럽 국가들의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추세와 유사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노인인구 비율은 연평균 4.0%가 증가하여 1990년 5.1%에서 2008년 10.3%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장래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0%, 2020년 15.6%, 2030년 24.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15> 합계출산율, 노인인구 비율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합계출산율(명)	2007	1.26	1.95	20	1.66	7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2008	10.3	12.1	18	17.4	7

주: 1)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통계청, 인구동태통계), 노인인구 비율은 2009년 10.7%, 2010년 11.0%임(통계청, 추계인구)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 OECD, Factbook

<표 1-16>에서 인구의 혼인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2007년 7.0으로 G20 평균(5.8)이나 G7 평균(5.1)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007년 2.5로 조혼인율과 마찬가지로 G20 평균(2.4)이나 G7 평균(2.3)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조혼인율은 터키와 러시아에서 8.9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이혼율은 러시아(4.8)와 미국(3.6)에서 높게 나타났다. 터키의 경우 조혼인율은 8.9로 가장 높으나, 조이혼율은 1.3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멕시코(0.7)와 이탈리아(0.8)에서 조이혼율이 1.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표 1-16> 조혼인율, 조이혼율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조혼인율(1천 명당)	2007 <sup>1)</sup>	7.0	5.8	14	5.1	7
조이혼율(1천 명당)	2007 <sup>2)</sup>	2.5	2.4	13	2.3	7

주: 1) 아일랜드/일본/멕시코/스페인/터키(2006년), 호주/영국(2005년)

2) 프랑스/독일/일본/멕시코/터키(2006년), 아일랜드/호주/스페인/영국(2005)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 2. 교육

교육 영역은 크게 교육환경과 개인별 교육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교육환경 관련 지표는 GDP 대비 R&D 지출 비율,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비율,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며, 교육수준은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성취도 지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표 1-17>에서 한국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2005년 3.0%로 G20 평균인 1.7%나 G7 평균(2.2%)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G20 국가 중 일본(3.3%) 다음으로 높다. 반면,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7년 4.2%로 G20 평균인 4.5%, G7 평균인 4.8%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4.3%)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국가 중에서는 3.4%인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사우디아라비아(6.4%), 벨기에(6.1%), 프랑스(5.6%), 영국(5.6%), 미국(5.5%)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 25.6명으로 G20 평균인 19.5명이나 G7 평균인 15.8명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999년 32.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9.8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G7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많은 편이지만, 합계출산율 감소로 인해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로는 멕시코(28.0명)와 브라질(23.9명)이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0.3명이다.

<표 1-17> 교육환경 관련 지표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GDP 대비 R&D 지출 비율(%)	2005 <sup>1)</sup>	3.0	1.7	17	2.2	7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비율(%)	2007 <sup>2)</sup>	4.2	4.5	20	4.8	7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명) <sup>4)</sup>	2007 <sup>3)</sup>	25.6	19.5	19	15.8	7

주: 1) 벨기에/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미국(2006년), 호주/브라질/인도(2004년)

2) 프랑스/독일/러시아/인도/터키(2006년), 중국(1999년)

3) 아르헨티나/영국(2006년), 인도(2004년), 캐나다(2000년), 호주(1999년)

4)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8년 21.3명, 2009년 19.8명(한국교육개발원)

출처: OECD, Factbook; UNESCO, UIS Data Centre

사회의 교육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대학 이상)을 이수한 사람들의 비율인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율은 2007년 34.6%로 G20 평균인 27.8%, G7 평균인 32.3%보다 높게 나타났다. G20 국가 중 캐나다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41.0%), 미국(40.3%)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8>과 <표 1-19>에서 학생들의 교육수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06년 수학, 읽기에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학과 읽기 점수는 각각 547.0점, 556.0점으로 G20 평균인 469.8점, 466.6점보다 매우 높으며, G7 평균인 497.3점 495.3점보다도 50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점수도 522.0점으로 G20 평균이나 G7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20 국가 중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 일본, 벨기에, 호주 등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과학 점수가 5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학과 읽기 점수도 모두 527.0점으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G20 평균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아 교육환경이 우수하지는 않지만, 개인들의 교육수준은 G7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수준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8> 교육수준 관련 지표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고등교육 이수율 <sup>1)</sup> (%)	2007	34.6	27.8	13	32.3	7
학업성취도_수학(점)	2006	547.0	469.8	16	497.3	7
학업성취도_읽기(점)	2006	556.0	466.6	15	495.3	6
학업성취도_과학(점)	2006	522.0	475.1	16	507.9	7

주: 1) 고등교육 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대학 이상)을 이수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표 1-19> 상위권 국가들의 학업성취도(2006년)

국가	수학		읽기		과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한국	547	1	556	1	522	4
캐나다	527	2	527	2	534	1
일본	523	3	498	5	531	2
벨기에	520	4	501	4	510	7
호주	520	4	513	3	527	3

주: 1) 순위는 G20 국가 중 해당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로 수학은 16개국, 읽기는 15개국, 과학은 16개국 중의 순위임

출처: OECD,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7





### 3. 보건

보건 영역은 크게 의료환경 관련 부분과 건강상태 관련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의료환경 관련 지표는 1만 명당 침상 수, 1만 명당 의사 수,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1인당 총 보건지출액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1만 명당 침상 수는 2006년 86개로 G20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G20 평균이 49.7개, G7 평균이 63.1개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G20 국가 중 일본의 1만 명당 침상 수가 141개로 가장 많으며, 러시아와 독일이 각각 97개, 83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1만 명당 의사 수는 2003년 16명으로 G20 평균인 22.1명보다 낮으며, G7 평균(27.7명)보다는 10명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다. G20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벨기에가 각각 43명, 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30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은 2007년 54.9%로 G20 평균인 61.2%에 비해 낮으며, G7 평균인 73.0%와 비교하면 약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 중 영국과 일본의 정부 보건지출이 비율이 각각 81.7%,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45.5%로 G7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총 보건지출액은 2007년 1,688달러로 G20 평균인 2,084달러보다 낮으며, G20 평균(3,837달러)의 거의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20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7,285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벨기에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은 낮은 수준인 반면, 1인당 총 보건지출액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과 1인당 총 보건지출액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은 2000년 44.9%에서 2007년 54.9%로 10%p 증가하였으며, 1인당 총 보건지출액은 2000년 809달러에서 2007년 1,688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20〉 의료환경 관련 지표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1만명당 침상 수(1만 명당 개수) <sup>3)</sup>	2000-2006 <sup>1)</sup>	86.0	49.7	18	63.1	7
1만명당 의사 수(1만 명당 명) <sup>3)</sup>	1997-2006 <sup>2)</sup>	16.0	22.1	20	27.7	7
보건지출 중 정부지출 비율(%)	2007	54.9	61.2	20	73.0	7
1인당 총 보건지출액 (PPP intl. \$)	2007	1,688	2,084	20	3,837	7

주: 1) 벨기에/독일/중국/한국/러시아/터키는 2006년, 멕시코/영국은 2004년, 브라질 2002년, 아르헨티나 2000년, 그 외 국가는 2005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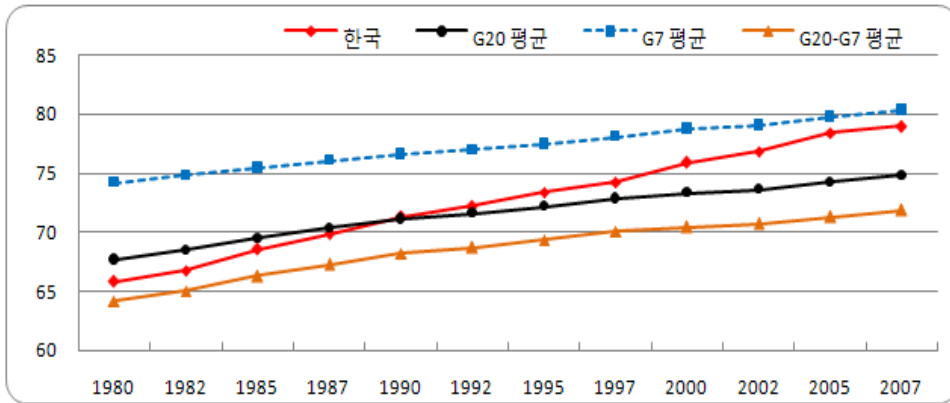
2) 인도/일본/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년, 중국/인도네시아/한국은 2003년, 호주 2001년, 브라질/멕시코/미국은 2000년, 아르헨티나 1998년, 영국 1997년, 그 외 국가는 2006년임

3) 한국의 1만 명당 침상 수는 2007년 93개, 2008년 98개이고, 1만 명당 의사 수는 2005년 17.7명, 2006년 18.4명, 2007년 19.0명, 2008년 19.5명, 2009년 19.8명임(보건복지부)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개인들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기대수명, 건강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조사망률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 기대수명은 79.0세로 G20 평균인 74.8세보다 높으며, G7 평균인 80.3세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0]에서 한국의 기대수명은 1980년 65.8세로 G20 평균(67.7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G7 평균(74.2세)과는 8.4세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다른 나라보다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 1990년 기대수명은 71.3세로 G20 평균인 71.1세보다 높아졌으며, 이후 G7 평균과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현재 한국의 건강수명은 전년보다 1.1세 증가한 80.1세이다.

<표 1-21>에서 기대수명은 평균수명으로 질병의 여부를 반영하지 못해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반면 건강기대수명은 전체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으로 건강상태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대수명은 2007년 71.0세로 기대수명보다 8세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대수명과 마찬가지로 G20 평균(67.2세)보다는 높으며, G7 평균(73.0세)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기대수명도 2003년 68.0세에서 3세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G20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이 각각 82.5세, 76.0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영국, 벨기에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9

[그림 1-10] 연도별 기대수명(세)

<표 1-21> 기대수명, 건강기대수명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기대수명 <sup>1)</sup> (세)	2007	79.0	74.8	20	80.3	7
건강기대수명(세)	2007	71.0	67.2	20	73.0	7

주: 1) 한국의 기대수명은 2008년 80.1세임(통계청)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HO, World Health Statistics

<표 1-22>에서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영아사망률과 조사망률을 보면, 2007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신생아 1천 명당 사망자 수)과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각각 4.0명, 6.0명으로 G20 평균(영아사망률 14.8명, 조사망률 8.5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G7 평균(각각 4.4명, 9.1명)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G20 국가 중 영아사망률은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모두 3.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망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건 영역의 전체 지표를 보면, 의료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G20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개인들의 건강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G20 평균보다 매우 높으며, G7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의료환경은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개인들의 건강상태는 이미 많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22〉 영아사망률, 조사망률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영아사망률(신생아 1천 명당)	2007	4.0	14.8	20	4.4	7
조사망률 <sup>1)</sup> (1천 명당)	2007	6.0	8.5	20	9.1	7

주: 1) 한국의 조사망률은 2009년 5.0명임(통계청)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 4.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 즉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며,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최근 들어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증가는 불확실성을 줄여서 사회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표 1-23〉 청렴도 지수, 정치 관심도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청렴도 지수(10점 만점) <sup>1)</sup>	2009	5.5	5.4	20	7.3	7
정치에 대한 관심(%) <sup>2)</sup>	2006 <sup>3)</sup>	41.2	46.5	20	50.9	7

주: 1) 청렴도 지수는 1~1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한 사회를 뜻함

2)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를 '매우 관심 있다'와 '어느 정도 관심 있다'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는 2007년, 호주/일본/이탈리아/한국/멕시코는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 2003년, 벨기에 1999년 자료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 기구: www.transparency.org); World Value Survey

사회통합 영역 지표 중 사회의 부패와 청렴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청렴도 지수를 보면 한국의 청렴도 지수는 2009년 5.5점으로 G20 평균(5.4점)보다 높지만, G7 평균(7.3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와 호주가 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이 8.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4.3점)를 제외하면 모두 6.9점 이상으로 청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청렴도 지수는 현재는 중간 정도이나 2000년 4.0점에서 2009년 5.5점으로 연평균 3.6%가 증가하였다. 이는 G7 평균이 2000년 7.3점에서 2009년 7.3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는 2005년 41.2%로 G20 평균(46.5%)보다는 5.3%p, G7 평균(50.9%)보다는 9.7%p 낮게 나타났다. G20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에서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G7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36.9%, 37.4%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24〉 타인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타인에 대한 신뢰(%) <sup>1)</sup>	2006 <sup>3)</sup>	28.2	30.3	20	33.8	7
외국인에 대한 신뢰(%) <sup>2)</sup>	2006 <sup>4)</sup>	27.1	47.5	17	66.2	6

- 주: 1) 타인에 대한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질문에 동의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외국인에 대한 신뢰는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는 질문에 '매우 신뢰한다'와 '어느 정도 신뢰한다'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는 2007년, 호주/일본/이탈리아/한국/멕시코는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 2003년, 벨기에는 1999년 자료임  
 4)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는 2007년, 호주/이탈리아/한국/멕시코는 2005년 자료임

출처: World Value Survey

타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2005년 28.2%,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27.1%로 나타났다. 이는 G20 평균이나 G7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의 G20 평균은 30.3%이고, G7 평균은 33.8%로 우리나라보다 각각 2.1%p, 5.6%p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G20 평균이 47.5%, G7 평균이 66.2%로 우리나라보다 각각 20.4%p, 39.1%p나 높게 나타났다. G20 국가나 G7 국가 모두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타인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G7 국가의 경우는 약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타인에 대한 신뢰보다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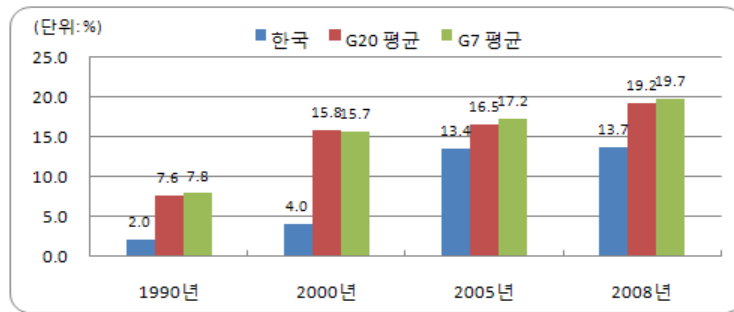
G20 국가 중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으로 각각 53.0%, 52.3%로 나타났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42.8%로 가장 높고 프랑스는 18.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신뢰는 G20 국가 중 영국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70% 이상으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해서 매우 포용적인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와 독일은 각각 44.4%, 41.9%로 G7 국가 중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 여성권한척도, 의회여성의원 비율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여성권한척도(지수) <sup>1)</sup>	2009	0.55	0.65	19	0.76	7
의회여성의원 비율(%)	2009	14.0	19.6	20	20.7	7

주: 1) 여성권한척도는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 지수(높을수록 평등)

출처: UNDP; The World Bank, Gender Statistics



출처: The World Bank, Gender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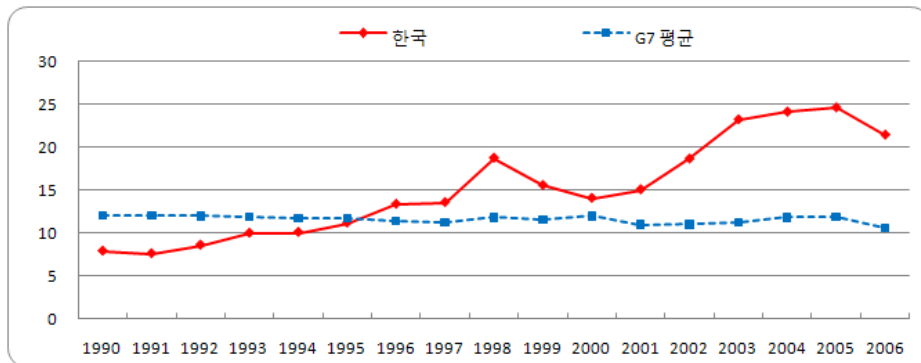
[그림 1-11] 의회여성의원 비율

다음으로는 사회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여성의 정치/경제활동에서의 참여정도를 보여주는 여성권한척도와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을 보여주는 의회여성의원 비율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는 2009년 0.55로 G20 평균(0.65)이나 G7 평균(0.76)보다 낮으며, 의회여성의원 비율 또한 2009년 14.0%로 G20 평균(19.6%)이나 G7 평균(20.7%)보다 낮아 한국의 남녀평등 정도가 비교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표 1-25>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의회여성의원 비율은 1990년 2.0%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권한척도는 G20 국가 중 호주와 벨기에가 0.87로 높게 나타났으며, G7 국가들의 경우 일본(0.57)을 제외하면 모두 0.74 이상으로 높아 여성의 정치/경제활동의 참여가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여성의원 비율은 G20 국가 중 아르헨티나에서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호주에서 30% 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 중에서 일본은 12%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한국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사회통합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자살률 지표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2006년 21.5로 비교



국(11개국)<sup>8)</sup>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G7 평균인 10.7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에는 7.9로 G7 평균인 12.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G7 국가의 경우 1990년 이후 거의 변화없이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996년에 13.4로 증가하여 G7 평균인 11.5를 초과하였으며, 1998년과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비교국 중에서는 일본의 자살률이 2006년 19.1로 높은 수준이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97년 15.2에서 1998년 20.4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변화없이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OECD, Health Data 2010

[그림 1-12] 연도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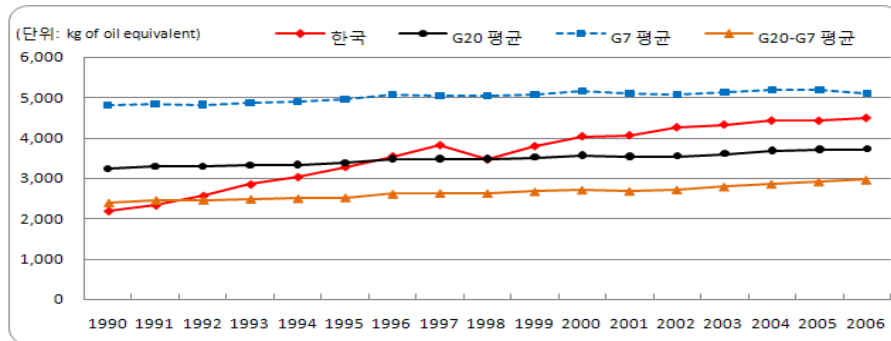
## 5. 환경

환경 영역에서는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지표 중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1990년에는 G20 평균보다도 약 1,000KOE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증가로 1996년에 G20 평균을 초과하였으며, 2006년에는 4,483KOE로 G7 평균(5,112KOE)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량도 이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 2007년 4.59TOE로 G20 평균(3.62TOE)보다 많으며, G7 평균(4.94TOE)과 근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sup>9)</sup> 공급비율은 2007년 1.4%로 G20 평균(11.7%)이나 G7 평균(7.1%)보

8) 자살률 지표의 경우 활용 가능한 국가별 자료는 G20 국가 중 G7 국가와 호주, 벨기에, 멕시코와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이다.

9)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다 낮아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3] 연도별 1인당 에너지 사용량

<표 1-26> 에너지 공급량,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량(TOE)	2007	4.59	3.62	18	4.94	7
1인당 에너지 사용량(KOE)	2006	4,483	3,716	20	5,112	7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2007	1.4	11.7	18	7.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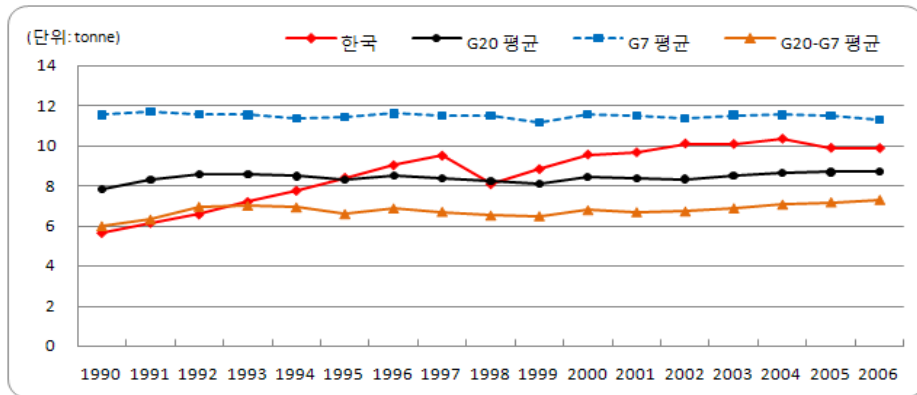
주: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2008년 2.4%(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 통계)

출처: OECD, Factbook;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연환경과 환경오염을 보여주는 지표로 녹지비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녹지비율은 2005년 63.5%로 G20 및 G7 평균(30.7%, 34.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 9.89Tonne으로 G20 평균(8.72Tonne)보다 높으며, G7 평균인 11.32Tonne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는 5.6Tonne으로 G20 평균인 7.8Tonne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14]를 보면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 1995년에는 8.4Tonne으로 G20 평균(8.3Tonne)을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기물에너지)와 3개 분야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다.





[그림 1-14] 연도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 1-27〉 한국과 G20, G7 환경지표 비교

지표	연도	한국	G20		G7	
			평균	비교국	평균	비교국
녹지 비율(%)	2005	63.5	30.7	20	34.4	7
1인당 CO <sub>2</sub> 배출량(Tonne)	2006	9.89	8.72	20	11.32	7

주: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은 2008년 2.4%(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 통계)  
출처: UNS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atabase

## 제5절 소득과 사회 및 환경지표와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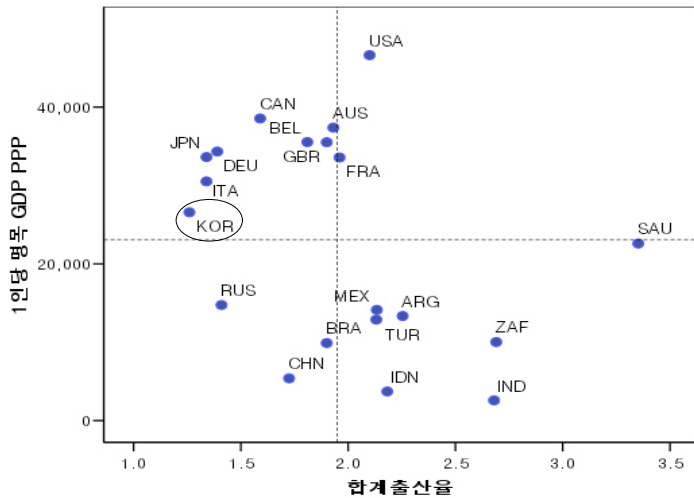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사회 및 환경의 주요 지표들이 소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두 지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상관분석<sup>10)</sup>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나라와 유사한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소득과 인구

소득(1인당 GDP PPP)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계수는 -0.375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상관계수가 높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10)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두 변수가 얼마나 밀접한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라 하며 상관계수를 통해서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소득은 G20 평균보다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비교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사한 나라로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고,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소득은 높지만, 합계출산율은 2.0 정도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국가이다. 반면, 소득이 평균보다 낮으면서, 합계출산율도 낮은 국가에는 러시아, 브라질,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으면서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소득은 평균선에 거의 육박하지만, 합계출산율은 매우 높은 나라이다.



주: 1) 상관계수는 -0.375임  
출처: 1인당 명목 GDP PPP는 IMF, WEO; 합계출산율은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1-15] 소득과 합계출산율: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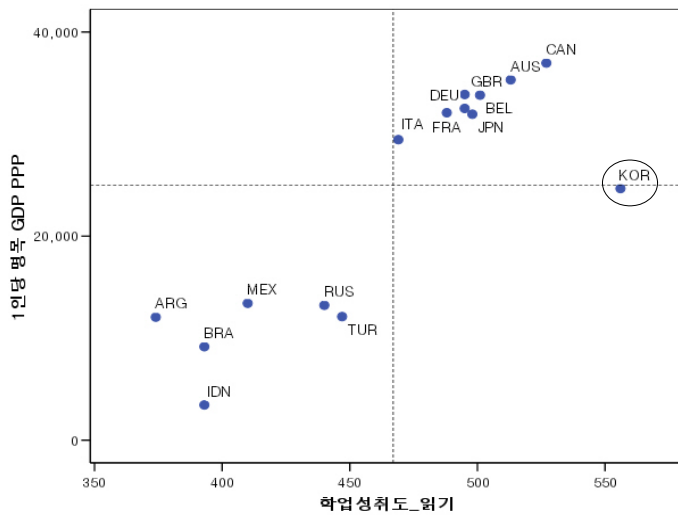
<표 1-28> 소득과 합계출산율별 해당 국가

소득과 합계출산율 관계	해당 국가
소득 ↑ 합계출산율 ↓	독일/벨기에/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한국/호주
소득 ↑ 합계출산율 ↑	미국/프랑스
소득 ↓ 합계출산율 ↓	러시아/브라질/중국
소득 ↓ 합계출산율 ↑	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인도/인도네시아/터키

## 2. 소득과 교육

소득과 교육에서는 소득과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과 교육환경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소득과 교육수준은 소득(1인당 GDP PPP)과 학업성취도(읽기)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비교 결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학업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학업성취도의 상관계수는 0.847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득은 비교국(15개국)의 평균 수준이나 읽기 과목의 학업성취도는 비교국 중 가장 높아,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와 호주, 벨기에는 소득과 학업성취도가 모두 높은 국가로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소득이 낮으면서 학업성취도 또한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소득이 높으면서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소득이 낮으면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국가는 G20 국가 중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비교국가는 15개국임(남아프리카공화국/미국/사우디아라비아/인도/중국 제외)  
 2) 상관계수는 0.847임

출처: 1인당 명목 GDP PPP는 IMF, WEO; 학업성취도는 OECD, PISA,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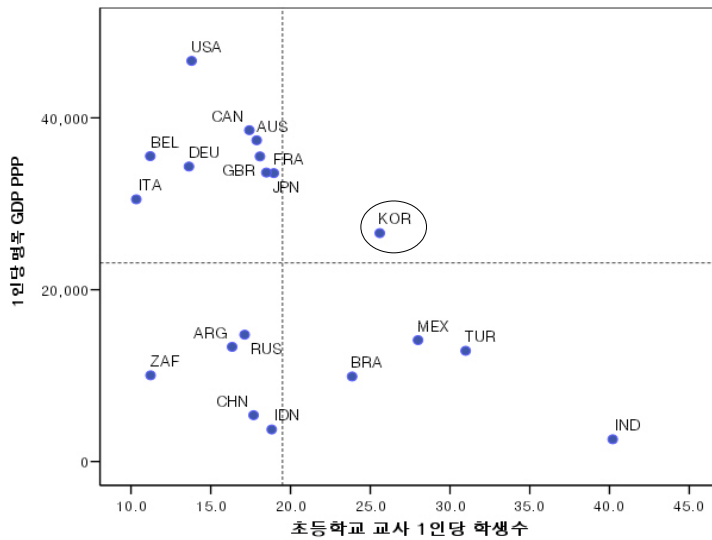
[그림 1-16] 소득과 읽기 학업성취도: 2006년

<표 1-29> 소득과 학업성취도(읽기)별 해당 국가

소득과 학업성취도 관계	해당 국가
소득 ↑ 학업성취도 ↑	독일/벨기에/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한국/호주
소득 ↓ 학업성취도 ↓	러시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터키

[그림 1-17]에서 소득(1인당 GDP PPP)과 교육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인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와 비교 결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 간의 상관계수는 -0.484로 높지는 않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득은 비교국(19개국)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아직도 많은 수준으로, [그림 1-17]과 같이 소득이 평균보다 높으면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평균보다 많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7 국가와 벨기에, 호주는 모두 소득이 높으면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들 중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중국들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적은 국가에 속하며, 인도, 터키, 멕시코, 브라질은 소득이 낮으면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비교국가는 19개국임(사우디아라비아 제외)  
 2) 상관계수는 -0.484임  
 출처: 1인당 명목 GDP PPP는 IMF, WEO; 교사 1인당 학생수는 UNESCO, UIS Data Centre

[그림 1-17] 소득과 교사1인당 학생수: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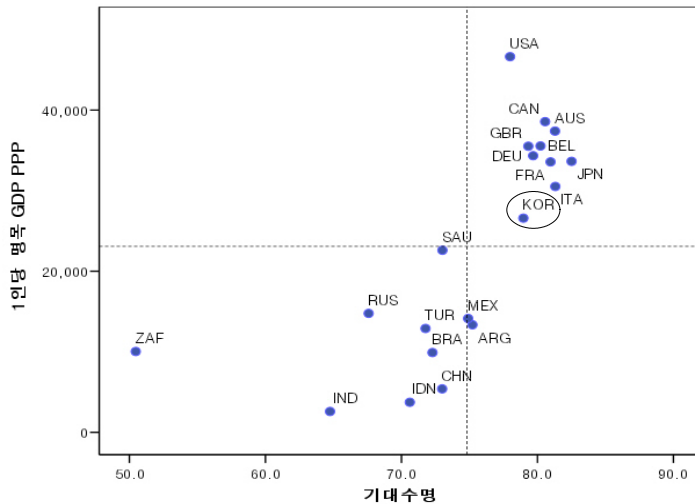


〈표 1-30〉 소득과 교사 1인당 학생수별 해당 국가

소득과 교사 1인당 학생수 관계	해당 국가
소득↑교사 1인당 학생수↓	G7 국가/벨기에/호주
소득↑교사 1인당 학생수↑	한국
소득↓교사 1인당 학생수↓	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중국
소득↓교사 1인당 학생수↑	인도/터키/멕시코/브라질

### 3. 소득과 보건

소득과 보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득과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과 의료환경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소득과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대수명지표를 활용하였다. [그림 1-18]에서 소득(1인당 GDP PPP)과 기대수명과의 비교 결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관계수는 0.711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상관계수는 0.711임

출처: 1인당 명목 GDP PPP는 IMF, WEO; 기대수명은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그림 1-18] 소득과 기대수명: 2007년

한국은 소득과 기대수명 모두 평균보다 높은 그룹에 속하며, G7 국가, 호주, 벨기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소득

과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기대수명이 50세 정도로 비교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20 국가 중에는 소득이 높으면서 기대수명이 낮거나, 소득이 낮으면서 기대수명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소득과 기대수명별 해당 국가

소득과 기대수명 관계	해당 국가
소득 ↑ 기대수명 ↑	G7 국가/벨기에/한국/호주
소득 ↓ 기대수명 ↓	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멕시코/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인도/인도네시아/중국/터키

소득과 의료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지표를 활용하였다. 소득(1인당 GDP PPP)과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과의 비교 결과,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또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소득과 정부의 보건지출비율과의 상관관계수는 0.632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득은 평균보다 높으나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으나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소득은 매우 높으나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와 호주, 벨기에는 소득과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이 모두 높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또한 낮게 나타났으며,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는 소득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 소득과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별 해당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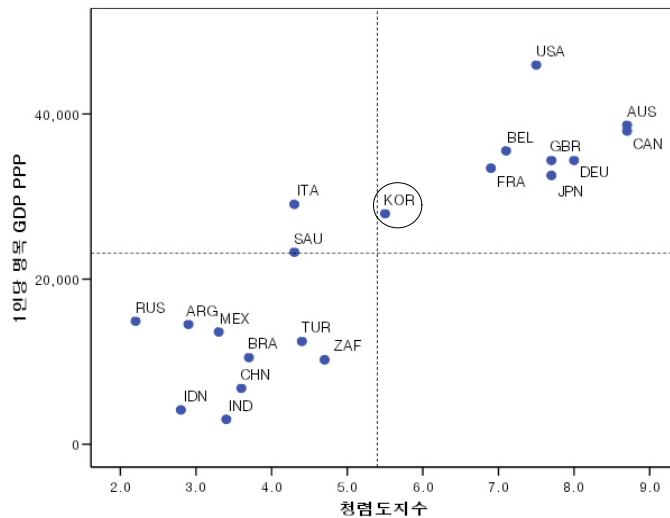
소득과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관계	해당 국가
소득 ↑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	미국/한국
소득 ↑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	독일/벨기에/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호주
소득 ↓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인도/인도네시아/중국
소득 ↓ 정부의 보건지출 비율 ↑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터키



## 4. 소득과 사회통합

소득과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청렴도와 여성권한척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우선 소득(1인당 GDP PPP)과 청렴도 지수<sup>1)</sup>와의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청렴도 지수도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청렴도 지수 간의 상관관계수는 0.879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0]에서 한국은 소득과 청렴도 지수 모두 평균보다 높은 국가에 속하며, 소득과 청렴도 지수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두 높은 국가에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와 벨기에, 호주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소득은 평균보다 높으나 청렴도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는 이탈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며,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국가이다. 반면 G7 및 벨기에,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소득이 평균보다 낮으며, 청렴도 지수 또한 평균보다 낮은 국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 중에는 소득이 낮으면서 청렴도 지수가 높은 그룹에는 해당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상관관계수는 0.879임

출처: 1인당 명목 GDP PPP는 IMF, WEO; 청렴도 지수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그림 1-20] 소득과 청렴도 지수: 2009년

11) 청렴도 지수는 1-10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한 사회를 뜻한다.

〈표 1-33〉 소득과 청렴도별 해당 국가

소득과 청렴도 관계	해당 국가
소득 ↑ 청렴도 ↑	독일/미국/벨기에/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한국/호주
소득 ↑ 청렴도 ↓	사우디아라비아/이탈리아
소득 ↓ 청렴도 ↓	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인도/ 인도네시아/중국/터키

다음으로 소득(1인당 GDP PPP)과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여성 권한척도<sup>12)</sup>와의 비교 결과,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 권한척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여성 권한척도와의 상관계수는 0.682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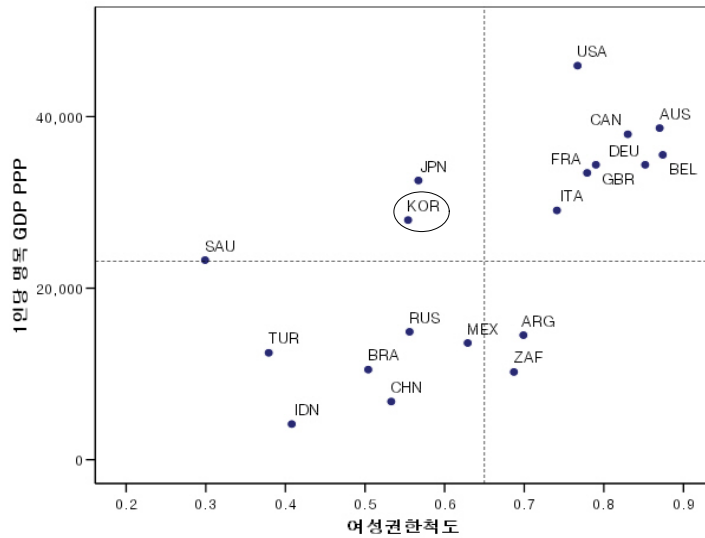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소득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여성 권한척도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으면서, 여성 권한척도가 낮은 나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G7 국가 중 여성 권한척도가 평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이며, 일본을 제외한 G7 국가와 벨기에, 호주 등은 소득과 여성 권한척도 모두 평균보다 높은 국가이다. 반면 이들 국가를 제외한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 중에서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성 권한척도가 평균보다 높은 국가에 속하며, 터키,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국가는 소득과 여성 권한척도 모두 평균보다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4〉 소득과 여성 권한척도별 해당 국가

소득과 여성 권한척도 관계	해당 국가
소득 ↑ 여성 권한척도 ↓	사우디아라비아/일본/한국
소득 ↑ 여성 권한척도 ↑	독일/미국/벨기에/영국/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호주
소득 ↓ 여성 권한척도 ↓	러시아/멕시코/브라질/인도네시아/중국/터키
소득 ↓ 여성 권한척도 ↑	남아프리카공화국/아르헨티나

12) 여성 권한척도는 여성 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여성비율,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평가한 지수로 높을수록 평등을 의미한다.





주: 1) 비교국가는 19개국임(인도 제외)

2) 상관계수는 0.682임

출처: 1인당 명목 GDP PPP는 IMF, WEO; 여성권한척도는 UN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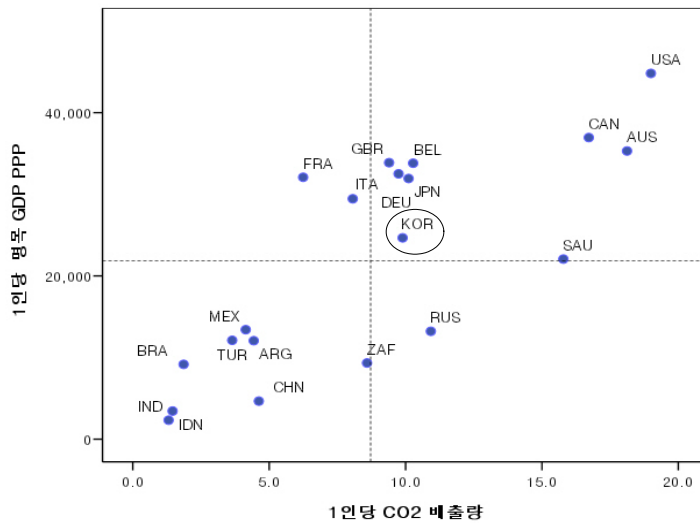
[그림 1-21] 소득과 여성권한척도: 2009년

## 5. 소득과 환경

소득과 환경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1인당 CO<sub>2</sub> 배출량 지표를 활용하였다. 소득(1인당 GDP PPP)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과의 비교 결과, [그림 1-22]에서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1인당 CO<sub>2</sub> 배출량 또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 지표의 상관계수는 0.778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벨기에, 독일, 일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외에도 소득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이 모두 높은 국가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캐나다, 호주 미국은 소득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이 모두 매우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7 국가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소득은 평균보다 높지만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은 평균보다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는 소득은 평균보다 낮지만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은 평균보다 높은 국가에 속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터키, 중국 등은 소득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상관계수는 0.778임  
출처: 1인당 명목 GDP PPP는 IMF, WEO; 1인당 CO<sub>2</sub> 배출량은 UNS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atabase

[그림 1-22] 소득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 2006년

<표 1-35> 소득과 1인당 CO<sub>2</sub> 배출량별 해당 국가

소득과 1인당 CO <sub>2</sub> 배출량 관계	해당 국가
소득 ↑ 1인당 CO <sub>2</sub> 배출량 ↓	이탈리아/프랑스
소득 ↑ 1인당 CO <sub>2</sub> 배출량 ↑	독일/미국/벨기에/사우디아라비아/영국/일본/캐나다/한국/호주
소득 ↓ 1인당 CO <sub>2</sub> 배출량 ↓	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인도/인도네시아/중국/터키
소득 ↓ 1인당 CO <sub>2</sub> 배출량 ↑	러시아

## 제6절 결론

본 연구는 G20 국가들의 사회경제지표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부문별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를 G7 및 G20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경제부문을 크게 생산·경기, 고용·노동, 금융·물가, 국제수지, 국제투자, 재정·부채 등 여섯 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각각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생산·경기 부문에서 1인당 명목 GDP는 구매력 평가환율로 환산하면 신흥국(12



개국) 중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구매력평가 환율로 환산한 1인당 명목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 수준이다. G20 국가 중 구매력 평가환율로 평가한 1인당 명목 GDP와 연평균 성장률이 모두 G20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노동 부문 통계들은 우선 실업률이 G20 국가들 중 가장 낮으나, 이에 반해 고용률은 G20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 비율은 G20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물가 부문에서 단기정책금리는 G20 평균보다 매우 낮으나 G7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GDP디플레이터는 G20 평균보다 낮고, G7 평균보다 높다. 명목 GDP에 대한 총저축의 비율인 총저축률은 G20 및 G7 평균보다 높으나, 가계저축률은 G20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저축률과 가계저축률 모두 2000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금리하락 및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대출 증가,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계저축률의 감소폭이 총저축률의 감소폭보다 매우 컸다.

국제수지 부문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인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수출과 수입 비중이 매우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았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음에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과 일본뿐이었다. 우리나라의 공적대외준비자산은 G7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었다. 한편, 국제투자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는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순국제투자는 대외투자에서 외국인투자를 차감한 것으로 2009년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재정·부채 부문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G7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독일 등 3개 국가이다. 정부부채 비중은 G7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호주와 우리나라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50% 미만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대외부채는 G7 국가들과 벨기에, 호주, 러시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에 GDP 대비 단기대외부채 비중은 G20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사회부문은 크게 네 개의 세부 영역, 인구, 교육, 보건, 사회통합 영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각각의 영역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부문은 아직까지 노인인구 비율이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니나,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비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분을 보면 교육환경은 G7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들의 교육수준은 G7 평균보다도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환경 부분은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개인들의 건강수준은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개인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지만, 사회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G7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부 지표의 경우는 G20 평균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살률 지표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가 10개국으로 대부분 G7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비교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간의 통합이나 신뢰 등 사회자본과 관련된 부분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분은 전체적으로 G7 국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과거에는 에너지 사용량이나 CO<sub>2</sub> 배출량 등이 G20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지표들의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는 G7 국가에 거의 육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이룩하여 선진국 수준, 즉 G7 국가 수준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기반 환경이나 사회통합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출산율 저하나 자살률의 급증, 환경오염 등은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개인들의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I):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정책연구총서, 2009.
- 산업연구원, *국제경제질서 재편과 G20의 역할*, 산업경제정보, 455호, 2009.
- 김치욱,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국가전략*, 15권, 4호, 2009.
- OECD,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0.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9.
-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 *Factbook*, 2009.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 <부 록>

<부표 1-1> G20 국가의 경제·사회지표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해당지표
경제	생산·경기	GDP, 광공업생산지수, 경기선행종합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소비자신뢰지수
	고용·노동	실업률, 고용률, 자영업자 비율
	금융·물가	단기정책금리,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 가계저축률, 총저축률
	국제수지	수출 비중, 수입 비중, 경상수지 비중, 공적대외준비자산
	국제투자	대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인투자(외국인직접투자), 순국제투자
	재정·부채	재정수지 비중, 정부부채 비중, 대외부채, 단기대외부채 비중
사회	인구	인구수, 인구집중도,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성취도(수학, 읽기, 과학), GDP 대비 R&D 지출 비율,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 비율,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보건	기대수명, 건강기대수명, 영아사망률, 조사망률, 1만 명당 침상 수, 1만 명당 의사 수, 보건지출 중 정부지출 비율, 1인당 총 보건지출액
	사회통합	청렴도 지수, 타인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관심, 여성권한척도, 의회여성의원 비율, 자살률
환경	환경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량,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녹지비율, 1인당 CO2 배출량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경제부문 생산·경기)

지표명	명목 GDP <sup>1)</sup>	명목 GDP PPP <sup>1)</sup>	1인당 명목 GDP <sup>1)</sup>	1인당 명목 GDP PPP <sup>1)</sup>	실질 GDP <sup>2)</sup>	광공업 생산지수 <sup>3)</sup>	
단위	(억\$)	(intl. 억\$)	(\$)	(intl. \$)	(억\$)	(2005년=100)	
연도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G7	독일	33,387	28,118	40,832	34,388	19,987	93.5
	미국	141,191	141,191	45,934	45,934	113,571	92.1
	영국 <sup>ii)</sup>	21,789	21,251	35,257	34,388	16,856	87.0
	이탈리아 <sup>ii)</sup>	21,183	17,377	35,435	29,068	11,128	83.0
	일본 <sup>ii)</sup>	50,689	41,523	39,740	32,554	48,722	81.7
	캐나다	13,361	12,784	39,658	37,947	8,468	83.1
	프랑스	26,564	20,940	42,413	33,434	14,728	87.6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872	5,045	5,824	10,229		
	러시아 <sup>iii)</sup>	12,319	21,161	8,681	14,034	4,295	103.4
	멕시코	8,748	14,636	8,134	14,913	7,192	99.4
	브라질	15,740	20,103	8,220	10,499		104.1
	사우디아라비아	3,763	5,939	14,745	23,272		
	아르헨티나 <sup>ii)</sup>	3,101	5,830	7,725	14,525		
	인도	12,369	36,153	1,032	3,015		135.3
	인도네시아 <sup>ii)</sup>	5,394	9,611	2,329	4,151		
	중국	49,847	90,470	3,735	6,778		
	터키	6,145	8,793	8,711	12,466	3,573	103.2
	한국 <sup>ii)</sup>	8,325	13,622	17,074	27,938	7,528	118.9
호주	9,942	8,489	45,285	38,663	5,352	104.9	
EU 의장국	벨기에	4,721	3,831	43,794	35,534	2,608	92.9
G20 평균 <sup>i)</sup>		22,572	26,343	22,728	23,165	20,308	98.0
G7 평균 <sup>1)</sup>		44,023	40,455	39,896	35,388	33,351	86.9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의 1인당 명목 GDP와 영국의 1인당 명목 GDP PPP는 예측자료임

iii) 러시아의 실질GDP는 2008년 자료임

출처: 1) IMF, WEO(World Economic Outlook)

2) OECD

3) OECD, MEI(Main Economic Indicators)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경제부문 생산·경기)(계속)

지표명	명목 GDP	명목 GDP	1인당	1인당	경기선행 종합지수 <sup>2)</sup>	소매판매액 지수 <sup>2)</sup>	소비자 신뢰지수 <sup>2)</sup>	
	연평균 성장률 <sup>1)</sup>	PPP 연평균 성장률 <sup>1)</sup>	명목 GDP 연평균 성장률 <sup>1)</sup>	PPP 연평균 성장률 <sup>1)</sup>				
단위	(%)	(%)	(%)	(%)	(long term=100)	(2005년=100)	(nomal=100)	
연도	1992-2009	1992-2009	1992-2009	1992-2009	2010.7	2010.7	2010.7	
G7	독일	2.86	3.26	2.75	3.15	106.5	98.6	98.3
	미국	4.82	4.82	3.72	3.72	102.5	94.0	96.7
	영국	4.11	4.50	3.68	4.06	103.3	114.2	98.6
	이탈리아	3.05	2.98	2.73	2.67	103.7	98.1	102.4
	일본 <sup>ii)</sup>	1.74	2.86	1.59	2.71	102.8	102.3	100.2
	캐나다	5.04	4.89	3.97	3.82	102.9	118.1	99.3
	프랑스	3.95	3.78	3.40	3.24	102.3	113.3	98.9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4.75	5.40	3.23	3.87	101.8	123.1	104.0
	러시아	16.98	3.55	17.31	3.84	101.9	151.7	
	멕시코	4.82	4.50	3.48	3.16	104.0	102.8	97.0
	브라질	7.98	5.32	6.51	3.88	99.4	147.8	107.5
	사우디 아라비아	6.16	4.83	3.63	2.34	(long term=100)		
	아르헨티나	1.80	5.47	0.71	4.34			
	인도	8.87	8.91	7.03	7.08	100.6		
	인도네시아	7.70	6.42	6.32	5.05	100.9		102.3
	중국 <sup>ii)</sup>	14.64	12.60	13.77	11.74	102.1		99.2
	터키	6.41	5.93	4.82	4.34	103.4		98.1
	한국	5.44	7.28	4.77	6.60	102.8	122.8	106.5
호주	6.86	5.70	5.48	4.33	103.0		101.8	
EU 의장국	벨기에	4.27	4.06	3.85	3.63	104.0	104.9	
G20 평균 <sup>i)</sup>		6.11	5.35	5.14	4.38	102.7	114.8	100.7
G7 평균 <sup>i)</sup>		3.65	3.87	3.12	3.34	103.4	105.5	99.2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일본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10. 6월 자료이고,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10. 5월 자료임

출처: 1) IMF, WEO(World Economic Outlook)

2) OECD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경제부문 고용·노동 / 금융·물가)

지표명	실업률 <sup>1)</sup>	고용률 <sup>2)</sup>	자영업자 비율 <sup>2)</sup>	단기정책 금리 <sup>3)</sup>	소비자 물가지수 <sup>3)</sup>	생산자 물가지수 <sup>3)</sup>	GDP 디플레이터 <sup>3)</sup>	가계 저축률 <sup>2)</sup>	총 저축률 <sup>2)</sup>	
단위	(%)	(%)	(배)	(연율, %)	(2005년=100)	(2005년=100)	(2005년=100)	(%)	(%)	
연도	2009	2008	2008	2010.4	2009	2009	2009	2009	2008	
G7	독일	7.5	70.2	1.187		106.6	108.0	104.7	11.3	25.8
	미국	9.3	70.9	1.073	0.75	109.2	109.9	109.6	4.3	12.1
	영국	7.6	72.7	1.153	0.46	111.2	113.9	110.7	7.0	15.4
	이탈리아	7.8	58.7	1.449		108.4	109.2	109.6	8.4	18.0
	일본 <sup>ii)</sup>	5.0	70.7	1.141	0.30	99.7	103.0	96.6	2.3	27.0
	캐나다	8.3	73.7	1.102	0.50	106.8	104.8	107.9	5.0	23.7
	프랑스	9.5	64.6	1.152		106.9	104.1	108.2	16.3	18.9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3.9			6.50	134.2	136.6	136.0		
	러시아	8.4	68.8		8.25	150.4	144.5	159.0		
	멕시코	5.5	61.3	1.365	4.94	119.0	124.7	124.2		25.4
	브라질	8.1	68.3		15.25	119.0	120.7	126.5		
	사우디 아라비아				0.32	124.5	113.0	108.0		
	아르헨티나	8.7			8.53	137.6	149.0	169.8		
	인도				6.00	142.0	122.4	123.0		
	인도네시아	8.0			6.20	128.3	165.8	162.7		
	중국	4.3			2.79	112.3		119.7		
	터키	14.0	44.9		15.00	139.3	132.6	136.8		
	한국 <sup>iii)</sup>	3.6	63.8	1.482	1.25	113.2	110.9	108.4	3.6	30.9
호주 <sup>ii)</sup>	5.6	73.2	1.149	4.22	112.5	113.1	116.9	4.3	23.7	
EU 의장국	벨기에	8.0	62.0	1.192		108.1		107.9	15.0	24.2
G20 평균 <sup>1)</sup>	8.5	66.0	1.222	5.08	119.5	121.4	122.3	7.7	22.3	
G7 평균 <sup>i)</sup>	7.9	68.8	1.179	0.50	107.0	107.5	106.8	7.8	20.1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호주의 자영업자비율은 2006년 자료이고, 일본의 총저축률 자료는 2007년 자료임

iii) 한국의 2009년 고용률, 자영업자비율, 총저축률은 각각 58.6%(통계청), 1.429배(통계청,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30.1%(한국은행)임

출처: 1) PGI(Principal Global Indicator, www.principalglobalindicators.org), IMF

2) OECD

3) IMF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경제부문 국제수지 / 국제투자)

지표명	수출 비중 <sup>1)</sup>	수입 비중 <sup>1)</sup>	경상수지 비중 <sup>2)</sup>	공적대외 준비자산 <sup>3)</sup>	대외투자 <sup>3)</sup>	해외직접 투자 <sup>4)</sup>	순국제 투자 <sup>3)</sup>	
단위	(FOB, %)	(CIF, %)	(%)	(억\$)	(억\$)	(억\$)	(억\$)	
연도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G7	독일	33.6	28.0	5.0	1,809	73,205	13,785	12,703
	미국	7.4	11.3	2.7	1,312	183,791	43,029	27,378
	영국	16.3	22.2	1.3	833	140,554	16,517	4,718
	이탈리아	19.1	19.5	3.1	1,053	28,502	5,781	4,342
	일본	11.4	10.8	2.8	10,494	60,268	7,409	28,918
	캐나다	23.4	24.6	1.7	544	13,571	5,669	1,140
	프랑스	17.8	20.9	2.0	1,331	68,159	17,197	3,159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sup>iii)</sup>	21.7	25.4	3.9	397	1,811	643	107
	러시아 <sup>ii)</sup>	24.4		6.1	4,395	11,092	2,489	1,184
	멕시코	26.2	28.1	0.6	999	2,390	535	3,529
	브라질	9.7	8.5	1.5	2,385	4,792	1,577	6,007
	사우디 아라비아 <sup>ii)</sup>	66.0	24.3	6.2	4,101		403	
	아르헨티나	18.2	13.5	2.9	480	2,254	294	562
	인도 <sup>iii)</sup>	12.7	19.4	2.8	2,835	3,394	772	809
	인도네시아	22.1	17.2	2.0	661	981	302	2,184
	중국	24.5	20.5	6.1	24,259	34,601	3,396	18,219
	터키	16.6	22.9	2.3	748	1,749	148	2,767
	한국	43.4	38.8	5.1	2,700	6,048	1,156	1,480
호주 <sup>ii)iii)</sup>	15.6	16.6	4.6	417	7,030	3,436	4,991	
EU 의장국	벨기에 <sup>ii)</sup>			2.5			6,690	
G20 평균 <sup>i)</sup>		22.6	20.7	0.4	3,250	35,788	6,506	57
G7 평균 <sup>i)</sup>		18.4	19.6	0.4	2,482	81,150	15,627	126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되고, 수출 비중, 수입 비중과 경상수지 비중은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ii)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비중은 2008년 자료이며, 호주, 벨기에, 러시아의 경상수지 비중은 2008년 자료임

iii)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외투자, 외국인투자, 순국제투자는 2008년 자료임

출처: 1) IMF,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 PGI(Principal Global Indicator, www.principalglobalindicators.org), OECD

3) PGI(Principal Global Indicator, www.principalglobalindicators.org)

4) UNCTAD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경제부문 국제투자 / 재정·부채)

지표명	외국인 투자 <sup>4)</sup>	외국인 직접투자 <sup>1)</sup>	재정수지 비중 <sup>2)</sup>	정부부채 비중 <sup>2)</sup>	대외부채 <sup>3)</sup>	단기 대외부채 비중 <sup>4)</sup>	
단위	(억\$)	(억\$)	(%)	(%)	(억\$)	(%)	
연도	2009	2009	2008	2008	2010. 1/4	2009. 4/4	
G7	독일	60,502	7,016	0.0	68.8	49,692	47.3
	미국	211,169	31,206	6.5	70.0	139,174	34.8
	영국	145,272	11,251	5.3	56.8	91,230	278.3
	이탈리아	32,845	3,940	2.7	114.4	24,568	32.0
	일본	31,349	2,001	2.7	172.1	20,390	26.3
	캐나다	14,711	5,249	0.1	69.7	10,155	22.3
	프랑스	71,318	11,330	3.4	75.7	51,235	76.4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1,918	1,251			813	6.4
	러시아	9,908	2,525			4,699	
	멕시코	5,919	3,095			2,058	2.7
	브라질	10,799	4,008	2.0		2,930	1.6
	사우디 아라비아		1,471				
	아르헨티나	1,692	810			1,180	8.9
	인도	4,203	1,640	7.3		2,615	3.0
	인도네시아	3,165	728			1,808	3.9
	중국	16,381	4,731				
	터키	4,517	777			2,666	7.7
	한국 <sup>iii)</sup>	7,528	1,108	3.3	26.8	4,098	15.3
호주	12,021	3,281	1.0	14.3	10,373	26.4	
EU 의장국	벨기에 <sup>ii)</sup>		8,301	1.2	93.5	12,525	
G20 평균 <sup>i)</sup>		35,845	5,286	2.2	76.2	24,012	37.1
G7 평균 <sup>i)</sup>		81,024	10,285	2.9	89.7	55,206	73.9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되고, 재정수지 비중, 정부부채 비중과 단기대외부채 비중은 GDP 대비 비중을 나타냄

ii) 벨기에의 대외부채는 2009년 4분기 자료임

iii) 한국의 2009년 재정수지 비중과 정부부채 비중은 각각 1.7%(한국은행), 32.0%(한국은행)임

출처: 1) UNCTAD

2) OECD, Eurostat

3) JEDH(Joint External Debt Hub, www.jedh.org)

4) PGI(Principal Global Indicator, www.principalglobalindicators.org)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사회부문 인구)

지표명	인구수 <sup>1)</sup>	인구집중도 <sup>1)</sup>	인구성장률 <sup>1)</sup>	합계출산율 <sup>1)</sup>	노인 인구비율 <sup>3)</sup>	조혼인율 <sup>4)</sup>	조이혼율 <sup>4)</sup>	
단위	(천 명)	(명/km2)	(%)	(명)	(%)	(천 명당)	(천 명당)	
연도	2008	2010	2008	2007	2008	2007	2007	
G7	독일	82,140	229.8	-0.16	1.39	20.1	4.5	2.3
	미국	304,060	33.0	0.92	2.10	12.7	7.3	3.6
	영국	61,399	254.8	0.65	1.90	16.2	5.2	2.6
	이탈리아	59,855	199.4	0.81	1.34	20.3	4.2	0.8
	일본	127,704	336.1	-0.05	1.34	22.1	5.8	2.0
	캐나다	33,311	3.4	1.01	1.59	13.6	4.6	2.5
프랑스	62,048	113.6	0.55	1.96	16.5	4.2	2.2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48,687	41.4	1.73	2.69	4.6	-	-
	러시아	141,800	8.2	-0.21	1.41	13.1	8.9	4.8
	멕시코	106,350	56.5	1.01	2.13	5.6	5.5	0.7
	브라질	191,972	23.0	0.97	1.90	6.5	-	-
	사우디 아라비아	24,646	12.2	2.00	3.35	-	-	-
	아르헨티나	39,876	14.6	0.94	2.25	-	-	-
	인도	1,139,965	369.4	1.34	2.68	5.2	-	-
	인도네시아	228,249	122.1	1.15	2.18	5.9	-	-
	중국	1,325,640	141.1	0.55	1.73	8.0	-	-
	터키	73,914	96.6	1.24	2.13	6.1	8.9	1.3
한국 <sup>ii)</sup>	48,607	487.3	0.31	1.26	10.3	7.0	2.5	
호주	21,374	2.8	1.69	1.93	13.7	5.4	2.6	
EU 의장국	벨기에	10,704	350.4	0.73	1.81	17.1	4.3	2.9
G20 평균 <sup>i)</sup>		206,615	144.8	0.86	1.95	12.1	5.8	2.4
G7 평균 <sup>i)</sup>		104,360	167.2	0.53	1.66	17.4	5.1	2.3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인구수 2009년 48,747천 명, 2010년 48,875천 명(통계청, 추계인구), 인구성장률은 2009년 0.29%, 2010년 0.26%(통계청, 추계인구), 합계출산율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통계청, 인구동태통계), 노인인구 비율 2009년 10.7%, 2010년 11.0%(통계청 추계인구)

출처: 1)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3) OECD, Factbook

4)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사회부문 교육)

지표명	고등교육	학업	학업	학업	GDP 대비	GDP 대비	초등학교	
	이수율 <sup>1)</sup>	성취도 수학 <sup>2)</sup>	성취도 읽기 <sup>2)</sup>	성취도 과학 <sup>2)</sup>	R&D 지출비율 <sup>3)</sup>	공공교육비 지출비율 <sup>4)</sup>	교사 1인당 학생수 <sup>4)</sup>	
단위	(%)	(점)	(점)	(점)	(%)	(%)	(명)	
연도	2007	2006	2006	2006	2005 <sup>1)</sup>	2007 <sup>iii)</sup>	2007 <sup>iv)</sup>	
G7	독일	24.3	504.0	495.0	516.0	2.5	4.4	13.6
	미국	40.3	474.0	-	489.0	2.6	5.5	13.8
	영국	31.8	495.0	495.0	515.0	1.8	5.6	18.1
	이탈리아	13.6	462.0	469.0	475.0	1.1	4.3	10.3
	일본	41.0	523.0	498.0	531.0	3.3	3.4	18.5
	캐나다	48.3	527.0	527.0	534.0	2.0	4.9	17.4
	프랑스	26.8	496.0	488.0	495.0	2.1	5.6	19.0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	-	-	0.9	5.3	31.0
	러시아	-	476.0	440.0	479.0	1.1	3.9	17.1
	멕시코	14.9	406.0	410.0	410.0	0.5	4.8	28.0
	브라질	9.6	370.0	393.0	390.0	0.9	5.2	23.9
	사우디 아라비아	-	-	-	-	-	6.4	11.2
	아르헨티나	-	381.0	374.0	391.0	-	4.9	16.3
	인도	-	-	-	-	0.7	3.2	40.2
	인도네시아	-	391.0	393.0	393.0	-	3.5	18.8
	중국	-	-	-	-	1.4	1.9	17.7
	터키	10.8	424.0	447.0	424.0	0.8	2.9	
	한국 <sup>v)</sup>	34.6	547.0	556.0	522.0	3.0	4.2	25.6
호주	33.7	520.0	513.0	527.0	1.8	4.7	17.9	
EU 의장국	벨기에	32.1	520.0	501.0	510.0	1.9	6.1	11.2
G20 평균 <sup>1)</sup>		27.8	469.8	466.6	475.1	1.7	4.5	19.5
G7 평균 <sup>1)</sup>		32.3	497.3	495.3	507.9	2.2	4.8	15.8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GDP 대비 R&D 지출비율의 경우 벨기에/캐나다/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미국은 2006년, 호주/브라질/인도는 2004년임

iii) GDP 대비 공공교육비 지출비율의 경우 프랑스/독일/러시아/인도/터키는 2006년, 중국은 1999년임

iv)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영국은 2006년, 인도 2004년, 캐나다 2000년, 호주 1999년임

iv)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영국은 2006년, 인도 2004년, 캐나다 2000년, 호주 1999년임

v)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8년 21.3명, 2009년 19.8명(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출처: 1)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9

2) OECD,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7

3) OECD, Factbook

4) UNESCO, UIS Data Centre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사회부문 보건)

지표명	기대 수명 <sup>1)</sup>	건강 기대 수명 <sup>2)</sup>	영아 사망률 <sup>2)</sup>	조사망률 <sup>3)</sup>	1만 명당 침상 수 <sup>4)</sup>	1만 명당 의사 수 <sup>4)</sup>	보건지출 중 정부지출 비율 <sup>2)</sup>	1인당 총 보건 지출액 <sup>2)</sup>	
단위	(세)	(세)	(신생아 천 명당)	(1천 명당)	(1만 명당개수)	(1만 명당 명)	(%)	(PPP intl. \$)	
연도	2007	2007	2007	2007	2000-2006 <sup>ii)</sup>	1997-2006 <sup>iii)</sup>	2007	2007	
G7	독일	79.7	73.0	4.0	11.0	83.0	34.0	76.9	3,588
	미국	78.0	70.0	7.0	8.0	32.0	26.0	45.5	7,285
	영국	79.3	72.0	5.0	10.0	39.0	23.0	81.7	2,992
	이탈리아	81.3	74.0	3.0	10.0	40.0	37.0	76.5	2,686
	일본	82.5	76.0	3.0	9.0	141.0	21.0	81.3	2,696
	캐나다	80.6	73.0	5.0	7.0	34.0	19.0	70.0	3,900
프랑스	81.0	73.0	4.0	9.0	73.0	34.0	79.0	3,709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0.5	48.0	46.0	17.0	28.0	8.0	41.4	819
	러시아	67.6	60.0	13.0	16.0	97.0	43.0	64.2	797
	멕시코	74.9	67.0	19.0	5.0	10.0	20.0	45.4	819
	브라질	72.3	64.0	20.0	6.0	26.0	12.0	41.6	837
	사우디 아라비아	73.0	62.0	20.0	4.0	23.0	14.0	79.5	768
	아르헨티나	75.2	67.0	15.0	8.0	41.0	30.0	50.8	1,322
	인도	64.7	56.0	54.0	8.0	-	6.0	26.2	109
	인도네시아	70.6	60.0	25.0	6.0	-	1.0	54.5	81
	중국	73.0	66.0	19.0	7.0	22.0	14.0	44.7	233
	터키	71.8	66.0	21.0	6.0	27.0	16.0	69.0	677
한국 <sup>iv)</sup>	79.0	71.0	4.0	6.0	86.0	16.0	54.9	1,688	
호주	81.3	74.0	5.0	7.0	40.0	25.0	67.5	3,357	
EU 의장국	벨기에	80.2	72.0	4.0	10.0	53.0	42.0	74.1	3,323
G20 평균 <sup>i)</sup>		74.8	67.2	14.8	8.5	49.7	22.1	61.2	2,084
G7 평균 <sup>i)</sup>		80.3	73.0	4.4	9.1	63.1	27.7	73.0	3,837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1만 명당 침상 수의 경우 벨기에/독일/중국/한국/러시아/터키는 2006년, 멕시코/영국 2004년, 브라질 2002년, 아르헨티나는 2000년, 그 외 국가는 2005년임

iii) 1만 명당 의사 수의 경우 인도/일본/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4년, 중국/인도네시아/한국은 2003년, 호주 2001년, 브라질/멕시코/미국 2000년, 아르헨티나 1998년, 영국 1997년, 그 외 국가는 2006년임

iv) 기대수명은 2008년 80.1세(통계청, 생명표), 조사망률은 2009년 5.0명(통계청, 인구동태통계), 1만 명당 침상 수는 2007년 93개, 2008년 98개(보건복지부), 1만 명당 의사 수는 2005년 17.7명, 2006년 18.4명, 2007년 19.0명, 2008년 19.5명, 2009년 19.8명임(보건복지부)

출처: 1)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0

3)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4) WHO Data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사회부문 사회통합)

지표명	청렴도 지수 <sup>1)</sup>	타인에 대한 신뢰 <sup>2)</sup>	외국인에 대한 신뢰 <sup>3)</sup>	정치에 대한 관심 <sup>2)</sup>	여성권한 척도 <sup>3)</sup>	의회여성 의원 비율 <sup>4)</sup>	자살률 <sup>5)</sup>	
단위	(10점만점)	(%)	(%)	(%)	(지수)	(%)	(십만 명당 명)	
연도	2009	2006 <sup>1)</sup>	2006	2006 <sup>1)</sup>	2009	2009	2006	
G7	독일	8.0	36.8	41.9	61.8	0.85	31	9.1
	미국	7.5	30.5	80.2	44.1	0.77	17	10.1
	영국	7.7	39.3	75.3	59.1	0.79	20	6.1
	이탈리아	4.3	29.2	44.4	37.4	0.74	20	4.8
	일본	7.7	39.1	-	64.3	0.57	12	19.1
	캐나다	8.7	42.8	77.1	52.6	0.83	25	10.2
프랑스	6.9	18.8	78.5	36.9	0.78	20	14.2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4.7	18.8	49.0	44.3	0.69	34	-
	러시아	2.2	26.2	40.4	38.9	0.56	11	-
	멕시코	3.3	15.6	25.8	33.7	0.63	22	4.3
	브라질	3.7	9.4	27.0	48.9	0.50	9	-
	사우디 아라비아	4.3	53.0	-	65.9	0.30	0	-
	아르헨티나	2.9	17.6	59.2	21.9	0.70	40	-
	인도	3.4	23.3	33.7	43.6		9	-
	인도네시아	2.8	42.5	31.9	36.1	0.41	12	-
	중국	3.6	52.3	13.2	64.5	0.53	21	-
	터키	4.4	4.9	27.2	38.6	0.38	9	-
한국	5.5	28.2	27.1	41.2	0.55	14	21.5	
호주	8.7	46.1	75.0	57.7	0.87	30	7.5	
EU 의장국	벨기에	7.1	30.7	-	38.9	0.87	36	16.3
G20 평균 <sup>1)</sup>		5.4	30.3	47.5	46.5	0.65	19.6	11.2
G7 평균 <sup>1)</sup>		7.3	33.8	66.2	50.9	0.76	20.7	10.5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치에 대한 관심도의 경우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는 2007년, 호주/일본/이탈리아/한국/멕시코는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 2003년, 벨기에는 1999년임

출처: 1)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2) World Value Survey(World Value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3) UNDP

4) The World Bank, Gender Statistics

5) OECD, Health Data 2010

〈부표 1-2〉 G20 국가별 경제·사회지표의 나라별 수치 및 출처(환경부문)

지표명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량 <sup>1)</sup>	1인당 에너지 사용량 <sup>2)</sup>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sup>1)</sup>	녹지비율 <sup>3)</sup>	1인당 CO <sub>2</sub> 배출량 <sup>3)</sup>	
단위	(TOE)	(KOE)	(%)	(%)	(Tonne)	
연도	2007	2006	2007	2005	2006	
G7	독일	4.03	4,231	8.6	31.7	9.74
	미국	7.75	7,778	5.0	33.1	18.99
	영국	3.48	3,814	2.4	11.8	9.40
	이탈리아	3.00	3,125	7.2	33.9	8.06
	일본	4.02	4,129	3.4	68.2	10.11
	캐나다	8.17	8,262	16.2	33.6	16.72
	프랑스	4.15	4,444	7.2	28.3	6.24
신흥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2.82	2,739	10.3	7.6	8.59
	러시아	4.75	4,745	3.3	47.9	10.92
	멕시코	1.74	1,702	9.3	33.7	4.14
	브라질	1.23	1,191	44.4	57.2	1.86
	사우디 아라비아	-	6,170	-	1.3	15.78
	아르헨티나	-	1,766	-	12.1	4.43
	인도	0.53	510	29.2	22.8	1.31
	인도네시아	0.84	803	31.2	48.8	1.46
	중국	1.48	1,433	12.3	21.2	4.62
	터키	1.35	1,304	9.6	13.2	3.65
	한국 <sup>ii)</sup>	4.59	4,483	1.4	63.5	9.89
	호주	5.87	5,917	5.6	21.3	18.12
EU 의장국	벨기에	5.37	5,782	3.8	22.0	10.28
G20 평균 <sup>1)</sup>		3.62	3,716	11.7	30.7	8.72
G7 평균 <sup>1)</sup>		4.94	5,112	7.1	34.4	11.32

주: i) G7 및 G20 평균은 현재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됨

ii)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2008년 2.4%(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출처: 1) OECD, Factbook

2)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 UNS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atabase





〈부표 1-3〉 G20 국가별 국명과 약자

국명	약자	국명	약자
아르헨티나	ARG	이탈리아	ITA
호주	AUS	일본	JPN
벨기에	BEL	한국	KOR
브라질	BRA	멕시코	MEX
캐나다	CAN	러시아	RUS
중국	CHN	사우디아라비아	SAU
프랑스	FRA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독일	DEU	터키	TUR
인도	IND	영국	GBR
인도네시아	IDN	미국	USA